

The FOUR SEASONS

한라인에게 영감을 주는 매거진 사계

2019 AUGUST — Vol. 323

Untact
Marketing



현대사회의
소비 방식이 날이 갈수록
조용해지고 있다.
인공지능 · 로봇 · 사물인터넷 ·
빅데이터와 같은 기술과
플랫폼에 의한 연결성은
기존의 전통적 소비 지형을
완전히 바꿨다.
현대인들은 더 이상
소비를 할 때 사람과의 만남을
필수로 여기지 않는다.
사람과의 접촉^{Contact}을
부정하는 언택트^{Untact}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이제 소비자들은
언택트 기술에 익숙해지고,
나아가 혼자인 게 편해지고 있다.

『트렌드 코리아 2019』 본문 중

Contents

2019 — AUGUST
Vol. 323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웹진으로 연결됩니다.
<http://hallawebzine.co.kr/>

발행일
2019년 8월 1일

Publish
(주)한라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289
(신천동 7-19) 02. 3434. 5791

Publisher
이석민

Editor in chief
기획팀 최인명

Editor
기획팀 이수민

Planning & Design
경성문화사 02. 786. 2999

Print
경성문화사



Cover story
사람과의 소통보다 로봇과의
소통이 더 편한 세상, 언택트
사회가 도래했다.
illust. 제니락

Trend

- 04 **Hot Keyword** 불편한 소통 대신 편한 단절이 좋다, Untact
- 06 **Power Creator** 언택트 차량관리 플랫폼, (주)카버샵
- 10 **Zoom In Trend** 로봇이 내려주는 커피, LOUNGE'X
- 12 **What's On** 한 프로의 '언택트'한 하루

Life + Live

- 14 **Style Guide** 강원순 프로의 '얼씨(Earthy)룩' 스타일링
- 18 **Tasty Story** 여름 과일의 제왕 수박
- 20 **Lovely Family** 서해선 10공구 현장 정종영 프로 가족
- 24 **Culture Salon** 그들은 누구인가, 사이코패스
- 26 **Science Story** 1kg의 기준이 줄어들고 있다
- 28 **Tourist** 라오스에서 온 편지

Halla + Culture

- 34 **Look Into** 건축의 모든 것을 한 눈에! 2019 코리아빌드
- 40 **Lead to Future** 녹취시스템 도입을 통한 고객응대 개선
- 42 **Halla Class** 도전! 일일 브루 마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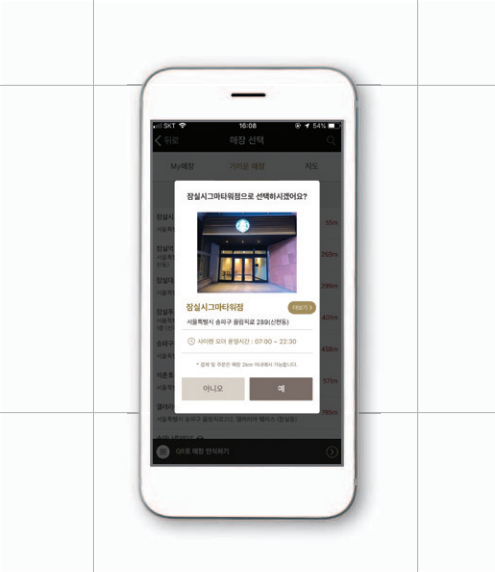
Halla + IN

- 46 **Halla News**
- 48 **Halla Board**
- 49 **Get Healthy**
- 50 **Notice Board**

불편한 소통 대신 편한 단절이 좋다
언택트 시대

Untact Marketing

언택트(Untact).
‘Contact’에 부정의 의미를 더하는
‘Un’을 붙인 신조어로,
사람 간 접촉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현대인들은 더 이상
불편한 소통을 원하지 않는다.
인공지능, 로봇,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기술과 대화하며 사람과는 단절하고 싶다는
이들의 ‘언택트 선언’은
현대의 당연한 현상이 되고 있다.



무인택배, 무인호텔, 무인편의점 기계와 대화하는 시대의 시작

스마트폰과 기계를 이용해 어디서든 신속하게 필요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다. 기계를 이용하기 때문에 어떤 제품을 구매하는지 알려질 걱정도 없고, 나만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패스트푸드’ 업계가 가장 먼저 언택트 마케팅을 도입했다. 이제 패스트푸드 매장을 찾은 고객들은 차례를 기다리거나 다른 사람의 눈치 볼 필요 없이 키오스크 기계 앞에 서서 먹고 싶은 메뉴를 선택한다. 서울 서초구의 한 화장품 회사는 가상 메이크업 어플과 테이블을 이용한 디지털 체험공간을 마련했으며, 주문과 동시에 결제를 하고 매장에서 음료만 받아갈 수 있는 스타벅스의 ‘사이렌 오더’ 이용률 역시 빠르게 높아지는 추세다.
무인택배, 무인호텔, 무인편의점에서 더 나아가 이제는 로봇카페, 챗봇에 이르기까지. 기계로 소통하고 로봇과 이야기하는 시대는 이미 시작됐다.



66
모든 것에 접촉하고
이어가는 기술 사회의 성취는
역설적으로
사람 간의 접촉을 끊는
언택트 기술을 촉진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99



편리함은 키우고, 대면은 줄인다 언택트 마케팅이 각광받는 이유

사람과 직접 대면할 필요 없이 몇 번의 클릭만으로 필요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언택트 마케팅. 간편함을 추구하고, 불필요한 대면은 최소화하고 싶어 하는 요즘 세대의 특징을 정확히 보여주는 사례다.
특히 언택트 마케팅은 1인 가구의 증가와 함께 개인주의 성향이 늘어나면서 점점 더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늘어나고, 점원과 물건을 사기 위해 맺는 관계조차 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실제 쇼핑할 때 직원이 다가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고 묻는 것조차 간섭으로 받아들여 스스로의 감정을 소비해야 하는 하나의 노동으로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이슈가 되기도 했다. 아마도 지나친 기술의 발달로 언제 어디서나 모두와 연결돼 있는 초연결 사회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됐기 때문이 아닐까. ‘혼자가 편해서’, ‘부담스럽지 않아서’ 등의 이유로 언택트 마케팅을 선호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점점 더 벌어지는 디지털 격차 언택트 시대의 장점과 단점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가 발표한 ‘무인화 추세를 앞당기는 키오스크’ 보고서를 보면 키오스크가 편리한 이유로 응답자의 87%가 ‘대기시간이 짧아서’를 꼽았다. 직원에게 말을 할 때보다 키오스크를 통하면 보다 간편하고 빠르게 주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키오스크가 불편한 이유 1위 역시 같은 맥락인 ‘처리 시간이 더 걸려서(74%)’였다. 누군가는 키오스크를 이용해 빠르고 편리하게 주문하는 반면, 다른 누군가는 주문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디지털 격차를 느끼는 이야기다. 이를 언택트 디바이드라고 부른다. 언택트 기술이 늘어나면서 이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는 현상으로, 특히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노년 계층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주)카버샵

장병후 대표

당신의 세상을 바꾸는 2시간,

언택트 차량관리 플랫폼



무인편의점, 무인마트,
무인주문시스템 등 無人서비스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주목해야 할
서비스가 등장했다.
바로 '언택트 차량관리 플랫폼'
(주)카버샵이다.
사람을 만나지 않고도 차를 건네고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니.
장병후 대표를 만나
차량관리에 비대면 서비스를
도입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들었다.
또 그가 꿈꾸고 있는 (주)카버샵의 미래 모습을
미리 엿보는 시간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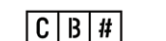
글 편집부 사진 고인순

Q. (주)카버샵은 어떤 기업인가요.

한 마디로 '비대면 차량관리 플랫폼'입니다. 차량을 소유한 사람이라
면 누구나 세차, 엔진오일 교환, 타이어 교체 등 차량관리를 위해 매달
2시간 정도를 소비하게 됩니다. 저는 (주)카버샵의 서비스를 이용해주시
는 분들에게 그 2시간을 돌려드리자는 생각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됐
습니다. 저희의 차량관리대행 서비스를 통해 절약한 2시간을 본인의
세상을 바꾸는데 쓰길 바라는 마음에서요.(웃음) (주)카버샵이라는 회사
명 역시 Car에 이발소라는 뜻의 Barbershop을 합성한 것으로, 이발은
대신할 수 없지만 차량관리만큼은 책임지고 해드리겠다는 다짐의 표
현입니다.

Q. 현재 이용자 수는 얼마나 되나요. (주)카버샵만의 장점이 있나요.

지난 2017년 11월 서비스를 시작한 (주)카버샵은 현재까지 100여 명의
고객분들이 이용해 주셨습니다. 총 서비스 제공건수는 300여 건에 달
하죠. 감사하게도 재이용률이 48%가 넘어, 서비스 만족도가 높다는 것
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남성고객보다 여성고객의 재이용률이 더 높은데
요, 그래서 8월 말 출시되는 앱과 홈페이지를 여성고객들이 사용하기
편한 방향으로 개편해나가는 중입니다. 저희 회사의 장점으로서는 법인
설립 전 출원한 특허를 꼽을 수 있겠네요. 창업 당시 IoT 차키 무인사
물함 관련 특허를 냈고, 그 결과 (주)카버샵은 현재 차키를 넣어두는 무
인사물함을 활용해서 차량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
입니다.



게이트 설치 현황

2018. 7

아셈타워, 트레이드 타워, 코엑스 옥상 주차장

2019. 3

도심공항타워, 도심공항터미널

2019. 8

선릉역 부근 2개 건물 추가 설치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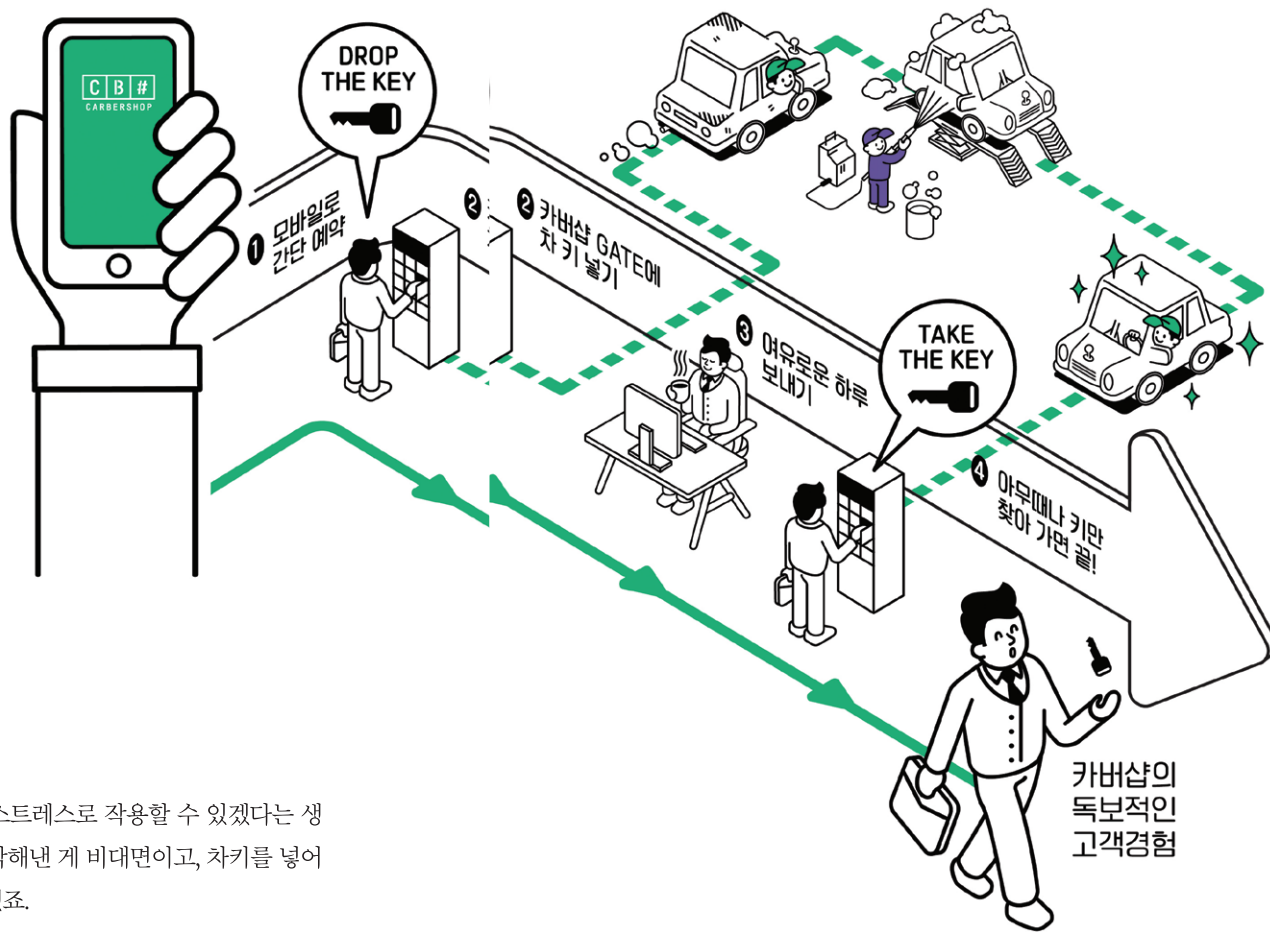
Q. ‘차량관리’ 서비스 아이디어는 언제 처음 떠올렸나요, 비대면 서비스를 하게 된 계기는요.

저는 원래 건설사에 다니던 일반 회사원이었습니다. 제가 차량관리 대행서비스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건 2017년 3월 즈음이었고, 그해 7월에 회사를 그만뒀죠. 아직 회사를 다니고 있던 어느 토요일, 세차를 하러 세차장을 찾아 차를 맡긴 뒤 대기실에 앉아있는데 갑자기 ‘내가 왜 이 좋은 토요일 이 시간에 여기 있어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평일엔 너무 바빠서 올 수가 없었고, 선택지는 토요일밖에 없다는 걸 아는데 그 사실 자체가 너무 싫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회사원들이 타이어 교체나 엔진오일 교환 등 차량관리를 토요일에 하고 있었어요. 말 그대로 ‘황금같은 휴일’인데 말이죠. 이내 생각은 ‘꼭 직접 가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로 이어졌고, 누군가가 대신해 줬으면 좋겠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왕이면 제가 일하거나 잠자고 있는 시간, 제 차가 주차장에 서 있을 때면 더 좋고요. 비대면 서비스의 경우, 처음부터 생각한 건 아니었습니다. 시장에 나와 있는 대행 서비스들을 살펴보고 직접 이용해보는 과정에서 기사님과의 만남에 다양한

변수가 생기더라고요. 그 또한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게 비대면이고, 차키를 넣어두는 무인 보관함을 개발하게 됐죠.

Q. ㈜카버샵의 차량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을 소개해주세요.

(주)카버샵 서비스는 ‘게이트(Gate)’라고 불리는 무인 보관함에 차키를 넣는 데서 시작합니다. 저희 슬로건이 ‘Drop the Key’인 이유죠. ‘게이트’는 코엑스 옥상 주차장, 도심공항타워, 아셈타워 등 삼성역과 신릉역 일대 건물 7곳에 설치돼 있습니다. 현재는 주로 강남 일대에서 서비스하고 있지만 점차 서울 전역으로 확대해 나가야겠죠. 고객들이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서비스를 신청한 뒤 게이트가 있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보관함에 키를 넣습니다. 게이트의 경우, 자물쇠별로 개별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나 인터넷이 필요 없습니다. 닫을 때마다 자동 잠금 되는 형태로, 비밀번호 변경 후 QR코드를 저장하게 돼 있습니다. QR코드는 차주와 카시터(타승기사)에게만 송출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차키를 주고받을 수 있어요.



Q. 최근 비대면 서비스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효율성과 자율성을 중요시하기 때문 아닐까요. 실제로 차량관리 대행 서비스 역시 대면과 비대면으로 제공할 때 차이가 큼니다. 대면 서비스는 차키를 줄 때와 받을 때 두 차례 시간을 맞춰 사람을 만나야 하고, 고객이 깨어있을 때밖에 진행할 수 없습니다. 비대면은 다르죠. 편한 시간에 보관하고, 회수할 수 있으며 심야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이처럼 좀 더 편리하고 쉬운 방향을 찾아보니 언택트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호응이 높아지는 거겠지요. 저는 저희 서비스 이용객들의 생산성이 비이용객보다 무조건 높다고 확신합니다. 차량관리에 써야 할 시간을 업무 혹은 다른 생활에 활용한다면 만족감이 높아지는 건 당연하겠죠. (주)한라 역시 본사 건물, 혹은 자체적으로 짓는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저희 (주)카버샵의 게이트를 설치한다면 직원과 고객들에게 보다 큰 만족감을 선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웃음)

Q. 비대면 서비스, 즉 언택트 마케팅에 부정적인 면도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비대면 서비스는 품질의 평준화를 이루는 매개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하향이 되더라도 최소한 평균적인 서비스 정도는 고객에게 보장한다는 데 이점이 있죠. 때문에 최상의 품질을 기대하는 분들에겐 단점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Q. 앞으로 ㈜카버샵이 추구해나갈 방향은 어떻게 되나요.

올해는 앱을 출시해 서비스 범위를 넓히는 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또 일반 건물뿐만 아니라 아파트 시장에도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이미 무인 택배함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저희 서비스와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최근에는 에쓰오일과 업무협약을 맺고 유류 할인을 제공받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무인 보관함에 차키만 맡기면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주유까지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고객들에게 보다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저와 직원들의 목표인 만큼, 앞으로 좀 더 다양한 협력사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5년 후 (주)카버샵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시장 점유율 10%를 달성하고,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등 한층 더 성장해 있겠죠. 커나가는 저희 모습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은 운전만 하세요. 나머지는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66

언택트에 대한 관심과 호응은 효율성과 자율성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의 성향에 기반합니다. 더 나아가 언택트는 개개인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일조하고 있죠.

99

로봇이 내려주는
핸드 드립 커피



Cafe
LOUNGE'X

향긋한 커피 내음이 솔솔 풍기는 카페,
LOUNGE'X를 찾았다.
취향에 맞는 원두를 골라 주문하자
바리스타가 분주히 움직인다.
나선형, 꽃 그리기 등의 드립 방식과
섬세하게 조정하는 물줄기까지,
바리스타의 손놀림이 화려하기 그지없다.
'소리 없이 강하게'
정성껏 핸드드립 커피를 내려주는
이 카페의 명물이자 대표 바리스타인 그(?)는
바리스타 로봇 '바리스'다.

글 편집부 사진 김동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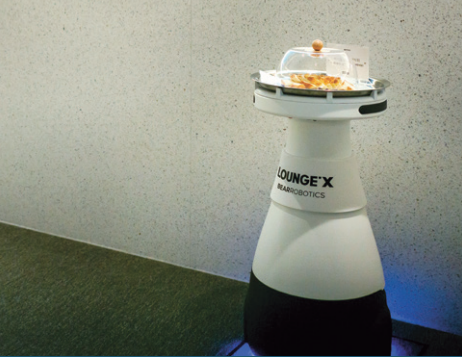


강남 한복판서 로봇 바리스타를 만나다

서울 '강남N타워' 지하 2층 카페, LOUNGE'X에 가면 사람 키 높이만큼 커다란 로봇 바리스타 '바리스'가 손님들을 맞이한다. 세 가지의 로봇 드립 커피 메뉴 중 '인도네시아 골리앗 롱베리'와 '파나마 레리다 게이샤 위시' 두 잔의 커피를 주문했다.
깔끔한 스테인리스 카운터 바에서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바리스는 주문이 들어가자 곧바로 정교한 손놀림으로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집게발로 사람이 갈아준 원두가 담긴 컵을 들어 여과지가 깔린 드리퍼 가까이 가져갔다. 이후 드리퍼에 원두 가루를 부은 뒤 가루가 평평해지도록 드리퍼를 좌우로 두세 번 흔들기까지 했다. 움직이는 모양새가 정말 자연스러워서 "어머, 애 진짜 사람처럼 세 번 흔드네?"라는 감탄사가 절로 나왔다. 다음으로는 뜨거운 물이 담겨있는 주전자를 가져와 드리퍼 위에서 원을 그리며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다. 신기하게도 두 가지 종류의 원두로 커피를 내리는 바리스의 움직임은 동일하지 않았다. '인도네시아 골리앗 롱베리' 원두를 사용할 때는 동글동글 부드러운 움직임을 보였는가 하면, '파나마 레리다 게이샤 위시'는 좀 더 힘찬 스냅을 활용하면서 꽃잎 모양을 그렷다. 드립 커피 종류에 따라 프로그래밍이 다르게 되었기 때문이다. 원두 특성에 따라 물의 양과, 온도, 물줄기의 강도와 뜸 들이는 시간에 차이가 있다. 다양한 풍미를 살려야 하는 원두라면 물줄기를 강하게 하고 작은 원을 여러 번 그려 커피를 내린다는 게 LOUNGE'X 직원의 설명이다.

사람과 함께 호흡하고, 일하는 협동로봇

바리스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협동로봇 'UR3e'이다. 협동로봇은 특유의 안전함으로 안전 펜스 없이도 설치·운용할 수 있다. 바리스가 직원들과 고객들 바로 옆 테이블 위 오픈공간에서 일할 수 있는 이유다. 이곳 LOUNGE'X에는 바리스 말고도 로봇이 하나 더 있다. 그(?)의 이름은 '빵셔틀'. 빵셔틀은 오후가 되면 2시간에 한 번씩 고객들이 앉아있는 테이블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빵을 나눠준다. 직원이 테이블 번호를 입력하면 머리 위에 빵을 실은 로봇이 찾아가는 시스템인데, "빵셔틀입니다. 무료로 맛보세요."라는 친절한 안내멘트를 듣는 고객들마다 자연스레 함박웃음을 지으며 빵으로 손을 가져가곤 한다. 빵셔틀 또한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스스로 속도를 조절하기 때문에 안전하다.



언택트가 반영된 대표 사례, 성장 기대감 UP

고객이 직원들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는 기존 틀은 이미 무너진 지 오래다. LOUNGE'X의 바리스나 빵셔틀 같은 로봇은 물론이고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다양한 디지털 신기술이 적용되면서 언택트(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호응은 날로 커지고 있다. 실제로 패스트푸드 업계를 중심으로 일찌감치 도입된 키오스크 주문은 일상화됐고, 어느새 4차 산업혁명 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언택트는 굳이 콘택트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종업원과 이야기를 섞지 않고 편하고 조용하게 소비하려는 사람들의 성향을 잘 설명하고 있다. 종업원에게 어떤 음료를 원하는지, 포인트를 적립할 것인지 등을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로봇 카페에 대한 선호도는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66
비대면 선호 트렌드가
로봇 바리스타에 대한 호응을 높이고,
어느새 일상 곳곳에 파고든
언택트 문화에
사람들의 관심도 날로 커져간다.

99





무인 시스템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언택트 마케팅을 적극 활용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언택트 서비스에 노출돼 있을까.

'한 프로'의 일과에서

일상 속 비대면 사례를 찾았다.

글 편집부

07:00 AM

무인개찰구 통과

'바쁘다 바빠'

카드를 찍고 지하철 개찰구를 통과했다. 바쁜 와중에도 문득 궁금해진다. 그 옛날 지하철 승차권을 끊어주던 역무원들은 다들 무얼 하고 있을까?



07:40 AM

스마트 오더

꾸벅꾸벅 졸다 보니 어느새 내려야 할 역에 도착했다. 정신을 차리기 위해 진하게 내린 아이스크피 한 잔이 절실하다. 스(빅)세권 회사를 향하는 길, 앱을 켜서 사이렌 오더로 아-아를 주문했다. 카페에 도착할 즈음 주문한 커피가 완성되었다는 알림이 울린다.



11:30 AM

비대면 계좌 개설

'딩동', 적금이 만기 되었다는 문자 메시지가 왔다. 휴대폰 앱을 열어 만기 된 적금에 이어 새로 가입했다. 은행에 안 가도 되니 시간도 절약되고, 은행원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되니 편하다.



02:00 PM

공유오피스 방문 등록

미팅 장소에 도착했다. 미팅할 협력사가 입주해 있는 곳은 공유오피스. 로비에서 태블릿 PC를 통해 방문하려는 기업과 목적, 내 인적사항을 적자 옆에 있는 키오스크에서 '당그랑' 방문허가 카드가 발급된다. 엘리베이터에 올라 카드를 찍은 뒤 목적층을 눌렀다.

12:10 PM

키오스크 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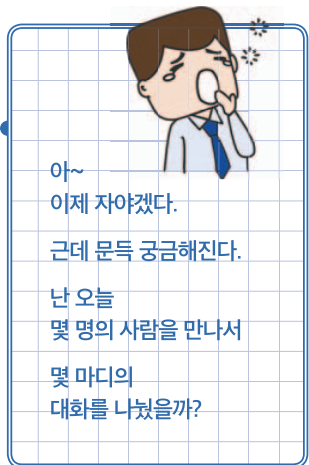
점심은 팀원들과 회사 근처 패스트푸드점에 갔다. 오늘은 베이컨 2장 추가해야겠다. 키오스크에서 베이컨 추가를 눌러 수량을 늘리면 끝. 스트레스엔 역시 지방이 제격이다.



01:25 PM

셀프 주유

외근을 가야할 일이 생겼다. 주차장을 빠져 나가는데 주유등에 빨간 불이 들어온다. 재빨리 셀프주유소로 들어가 능숙하게 기계를 조작해 기름을 가득 넣었다.



05:30 PM

콜택시 앱 호출

퇴근 무렵, 장마라더니 비가 세차게 내린다. 우산은 없지만 걱정하지 않는다. 콜택시 앱을 켜고 호출을 눌렀다. 이미 여러 번 이용했던 지라 회사와 집의 주소를 기입하지 않아도 클릭 한 번이면 OK.

04:05 PM

회사 메신저

자리를 비운 사이 회사 메신저에 남겨진 메시지들을 확인하고 차례로 답변했다. 간단한 메시지에 전화보다 메신저로 답하는 게 빠르다. 메신저가 없다면 어땠을까? 아, 생각만 해도 번거롭다.



06:00 PM

배달앱으로 음식 주문

비도 오고, 오늘 저녁은 배달각.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배달 앱을 켜다. 비 오는 날엔 무조건 파전에 막걸리지~



09:30 PM

비대면 빨래서비스 앱

저녁을 먹고 나니 잔뜩 쌓여있는 빨래가 눈에 들어왔다. 문 밖에 빨래 바구니를 내어놓고 비대면 빨래대행 앱을 열어 서비스를 신청했다. 이렇게 하면 내일 아침까지 빨래를 해서 가져다준단다.

<사계> 기자가 소개하는 이달의 즐길거리

인프라사업관리팀 김민중 프로



남미의 지붕 안데스산맥을 뛰어놀던 알파카들이 기다리고 있는 알파카월드는 강원도 홍천의 숲속 11만 평에서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동물친구들과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푸른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알파카월드에서 귀여운 알파카를 마음껏 쓰다듬고 안아주며 교감도 나눠보세요. 이 글을 작성하는 지금도 알파카가 눈에 아른아른하네요. 아침! 홍천 옆 동네는 춘천인데요, 오는 길에 춘천에 들러 소양강댐도 보고 닭갈비도 맛있게 드시면 알찬 하루가 될 듯합니다.



시원한 산 속 동물나라,
홍천 알파카월드

주소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풍천리 310

관람시간

매일 10:00 ~ 18:00

(오후 5시 매표소 및 사파리기차 마감)

설날/추석 당일만 휴무

관람료

입장권 15,000원 (대·소인 공통, 36개월 이상~)

알파카와 힐링산책 10,000원

알파카사파리기차 3,000원

‘여름 하면 원색’이라는
패션 공식이 깨지고 있다.
이제 대세는 중립과 중성을 의미하는
뉴트럴(Neutral)이다.
최근 내추럴 컬러와
간결하고 심플한 형태의 얼씨룩이
급부상하고 있는 이유다.
인프라사업관리팀 강원순 프로가
일상에 소소하게 스며드는 자연미를
멋스럽게 소화해냈다.
글 편집부 사진 황원 스타일링 이서연
의상 협찬 현대아울렛 가산점
브랜드 협찬 티아이포맨(T.I FOR MEN)

자연의 색감으로 부드럽게 얼씨^{Earthy}룩 스타일링

인프라사업관리팀 강원순 프로



Style.1

그냥 줄무늬 말고 라인 살리는 스트라이프

다 같은 줄무늬가 아니다. 자칫 잠옷이나 환자복처럼 보일 수 있다는 우려로 스트라이프를 꺼려왔다면 다시 생각해보자. 브라운 언발란스 스트라이프 와이드카라 셔츠는 그간의 고정관념을 단번에 불식시킨다. 안으로 들어갈수록 촘촘해지는 간격이 라인을 살리고 더욱 날씬해 보이는 효과를 주는 까닭이다. 수수한 원턱 린넨 슬립 팬츠는 이 같은 포인트를 돋보이게 하는 파트너로 손색없다.

셔츠 브라운 언발란스 스트라이프 와이드카라 셔츠 10만 9,000원(7만 6,300원) 팬츠 원턱 린넨 슬립 팬츠 14만 9,000원(아울렛가 동일)

Style.2

린넨, 세련된 남성미를 발산하다

린넨 재킷은 일종의 모험이다. 통풍이 원활해 시원하고 착용감이 월등하지만, 격식과는 거리가 있다. 이런 고민을 덜어줄 베이지 루즈핏 린넨 슬립 자켓은 딱 떨어지는 선으로 어느 자리에도 무난히 어울린다. 그 안에 라이트차콜 린넨 헨리넥 셔츠를 받쳐 입으면 세련된 남성미를 발산한다.

재킷 베이지 루즈핏 린넨 슬립 자켓 27만 9,000원(아울렛가 동일) 셔츠 라이트차콜 린넨 헨리넥 셔츠 15만 9,000원(아울렛가 11만 1,300원)





Style.3

기본 좋은 한낮의 산책을 완성하는 비결

푸르른 녹음 속 휴식을 카키 슬립 포켓 티셔츠와 함께한다. 뜨거운 햇살 위에 상쾌하게 드리운 나무 그늘처럼 차분한 색상은 뭇 시선을 사로잡는 비결이다. 여기에 활동성을 갖춘 스트라이프 밴딩 반바지와 귀여움을 더해주는 뽀티 스카프를 조합하면 기본 좋은 한낮의 산책, 완성이다.

티셔츠 카키 슬립 포켓 티셔츠 5만 8,000원(아울렛가 2만 9,000원) **팬츠** 스트라이프 밴딩 반바지 9만 8,000원(아울렛가 2만 9,000원)

Shopping Guide

현대시티아울렛 가산점 8월 행사

라코스테 ACC 클리어런스 Up to 80%

기간 8.1(목) ~ 8.11(일)

장소 6층 대행사장

내용 양말 3,300원 / 모자·언더웨어 9,900원~
벨트·장갑 1만 9,000원 / 신발·가방 2만 9,000원~
*가격은 변동될 수 있음

대현그룹전 Up to 90%

기간 8.16(금) ~ 8.22(목)

장소 3층 대행사장

브랜드 듀엘, 주크, cc콜렉트

가을맞이 골프페어 Up to 80%

기간 8.23(금) ~ 8.29(목)

장소 6층 대행사장

브랜드 팬텀, 링스, 와이드앵글, 김영주골프 외

뽀렐땅 사계절 클리어런스 Up to 85%

기간 8.23(금) ~ 8.29(목)

장소 3층 대행사장



“아내가 잠시 의류 사업에
몸담은 적 있어서 시간 나면
옷 사진 찍어주는 작업을 자처했어요.
매번 카메라 뒤에 있다가 드디어 앞에 서보네요.
올해 네 살인 우리 아들은 엄마 닮아서 그런지
패션 보는 안목이 까다로워요.
언제부터인가 옷차림에 대해
나름 진지하게 평가해주는데 의외로 괜찮아서
옷 고를 때 일부러 데리고 다닌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엄지를 척 올릴 때면
괜스레 안심하게 된다고나 할까요.(웃음)”

Style.4

일상에 여유를 더하는 편안한 매력

기지개를 켜고 살며시 웃어본다. 가볍게 몸을 감싸는 세미오버핏 헨리넥 반팔 셔츠가 여유를 더한다. 여기에 낮은 채도의 카키 코튼 린넨 밴딩 팬츠를 매칭하니 안정감 있게 어우러진다. 딱 봐도 알겠다. 강원순 프로가 지금, 이 순간을 더 없이 즐기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마저 편안해지는 얼씨룩만의 매력이다.

셔츠 세미오버핏 헨리넥 반팔 셔츠 11만 8,000원(아울렛가 3만 9,000원) **팬츠** 카키 코튼 린넨 밴딩 팬츠 11만 8,000원(아울렛가 5만 9,000원)

시원함과
건강을 동시에
선물하는

여름 과일의 제왕

수
박



바야흐로 수박의 계절이 다가왔다. 세모 모양으로도 먹고, 네모 모양으로도 자르고, 주스로 갈기도 하고, 화채로도 만들어 먹는 그 수박 말이다. 수박을 먹었을 때 몸이 시원하게 느껴지는 것은 수박이 진짜 몸을 차갑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뇨를 촉진시키기 때문이다. <동의보감>에서도 '답답하면서 목이 마른 것을 풀고 속을 느긋하게 하고 기를 내리며, 소변을 잘 나오게 한다'고 극찬한 수박 이야기를 좀 해보려 한다.

글 박찬일 요리연구가

수박이 맛있어지는 날씨

하우스 재배가 늘면서 장마철 무렵이면 최상품의 수박이 나오기 시작한다. 노지 재배가 대중을 이뤘던 과거에는 장마철이 지나고 한여름 폭염이 무르익어야 수박 맛도 영글었지만, 다 옛날 얘기다. 노지 재배에 대한 사람들의 신념 비슷한 선입견이 있는데, 무조건 노지 재배가 맛있다는 시절도 지났다. 하우스 재배가 병충해도 줄이고 어떤 경우는 더 친환경적일 수 있다. 또 작물이 한꺼번에 시중에 쏟아져서 가격 폭락이 일어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줄여주는 대안이 되기도 한다.

옛날에는 수박을 살 때 칼로 삼각뿔 모양으로 도려내어서 맛을 보여주곤 했다. 겉보기와 달리 속이 덜 찬 수박이 흔했기 때문이다. 농업 기술이 높지 않을 때라 당시에는 문제가 꽤 심각(?)했다. 사가지고 오면 속이 덜 차거나 싱거운 수박이 흔했다. 요즘도 비가 잦아지면 수박 맛이 흐려진다. 노지 재배가 많을 때는 수확 철에 비가 잦거나 우박이 떨어져 농사를 망친 뉴스가 신문에 나오곤 했다. 수박은 일교차가 세야 맛이 예쁘게 들고, 무엇보다 일조량과 고온이 수박 맛을 좋게 한다. 너무 고온이어도 좋지 않다고 한다. 예를 들면 아마도 수박의 원산지라고 생각되는 페르시아-터키로 이어지는 실크로드 지역의 여름 고온은 이 지역의 수박 맛을 최고로 만든다.

예전에 수박 맛이 떨어질 때 대안은 화채였다. 수박을 칼로 예쁘게 썰거나 아니면 손가락으로 퍼서 잘게 쪼갠 얼음과 설탕에 버무려 먹었다. 얼음은 냉장고 각 얼음보다 얼음 가게에서 산 큰 얼음을 바늘로 쪼개어 넣는데, 그 불규칙한 예각의 얼음이 수박화채 맛을 복돋웠다. 화채를 다 건져 먹고, 설탕이 질게 뱀국물을 마실 때의 쾌감이란!

수박은 올해 아주 맛이 좋다. 마른장마인 까닭이다. 대신 농가의 시름은 깊다. 수박 값이 폭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장성도 좋지 않아서 출하시기를 조절하기도 어렵다. 이럴 때는 그저 수박을 많이 먹어드리는 게 우리가 고작 할 수 있는 일이지만, 1인 가족이 늘면서 수박 소비도 줄어들었다. 1인 가구는 과일 소비량이 낮다는 통계가 있다.

수박을 고르고 맛있게 먹는 법

그럼 수박을 잘 고르는 법은? 우스갯소리 같지만, 같은 조건이면 비싼 게 더 맛있다. 이미 수박의 맛에 따라 경매가가 연동되고, 그 도매가가 소비자에게도 연속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그래도 뭔가 고르는 비법이 있지 않을까. 우선 두드려서 소리가 맑게 퍼지는 게 확실히 맛이 좋다. 둔탁한 건 속이 덜 찼을 수 있다. 꼭지가 붙어 있냐 아니냐를 보기도 하는데 별 의미 없다는 게 중론이다. 꼭지가 두껍고 싱싱하면 맛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한다. 더러 시든 꼭지는 외면받는데,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수박이 후숙 효과를 내면서 더 달았던 적도 있다. 더러 먹을 시기를 놓쳐서 안 좋은 경우도 있다.

66

수박은 올해 아주 맛이 좋다.
마른장마인 까닭이다.
대신 농가의 시름은 깊다.
수박 값이 폭락하고 있기 때문.
이럴 때 우린 그저
수박을 많이 먹어드리는 게 전부다.
갈고, 굽고, 썰고, 섞어서
많이 먹고 건강해지자.

99

요새는 별 수박이 다 출시된다. 사각이나 삼각뿔 모양으로 만들기도 한다. 맛과는 상관없다. 노란색 수박도 맛보다는 색깔의 특이점이 인기를 끄는 경우다. 씨 없는 수박도 있다. 씨 없는 수박은 확실히 당도가 높다.

요새는 하우스 수박이 대세를 이루고 재배 기술이 발달해서 특정 지역의 수박이 더 맛있단 아니다를 가르기 힘들다고 한다. 어떤 지역의 경우 생산량이 많아서 유명해졌을 뿐, 특별히 수박의 품질이 더 뛰어나다고 보지 않는다.

반으로 자른 수박을 살 때는 더 분명하게 품질을 구별할 수 있다. 껍질이 얇으면 대개 맛있다. 섬유질이 엉겨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수박은 대체로 맛이 없다. 이른바 '심이 박혀 있다'고 부르는 상태다. 색깔이 고르고 붉은색이 선명한 것이 맛있고, 더러 섬유질 쪽으로 누런색이 침착되어 있는 수박은 맛이 대체로 떨어진다. 크기는 평균적으로 큰 것이 맛있는데, 아주 큰 것 중에는 접붙이기에 의해 크게 만들기는 했지만, 맛까지 최상은 아닌 경우도 있다. 수박은 대목으로 호박이나 박 같은 '박과 식물'에 접붙이기를 하는데, 대목이 무엇이나에 따라 크기와 맛의 차이가 난다. 하지만 소비자가 그것을 알아차리기는 어려우므로 별 의미가 없다. 수박은 한국에선 언제나 과일이지만, 서양에서는 요리 재료로 쓰기도 한다. 또 한국에서는 수박에 설탕을 뿌리지만, 서양은 소금을 뿌린다. 소금은 수박의 단맛을 더 두드러지게 해준다.

습도가 높아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송골송골 맺히는 장마철의 어느 날. 서해선 10공구 현장 정종영 프로와 아내 백주영 씨는 초롱초롱한 눈망울의 아들 시영이와 함께 스튜디오를 찾았다. 휴가기간을 이용해 가족끼리 단란한 한때를 기념하기 위해서다. 아이와 함께 멋진 가족사진을 남길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에 부부의 발걸음은 유난히 가볍다.

글 편집부 사진 황원

서해선 10공구 현장
정종영 프로 가족

맑은 꿀 가족의 더위를 피하는 방법



Life + Live



호기심 가득한 눈빛, 촬영장을 녹이다

차 안에서 한숨 자고 일어난 탓에 잠이 덜 깬 얼굴로 촬영장에 들어선 시영이. 처음엔 멍한 눈빛이었으나 이내 생기를 되찾는다. 특유의 호기심이 발동한 듯 이제 18개월 된 시영이의 초롱초롱한 눈빛이 스튜디오 내부 곳곳을 훑는다. 뒤편 눈으로 보고 만져봐야 직성이 풀리는 시영이는 시선이 닿는 곳으로 아장아장 발걸음을 옮기느라 바쁘다.

촬영 초반 아무래도 어색함이 묻어나는 촬영장 분위기를 환하게 만들어준 주인공은 시영이다. 소품으로 준비해온 비눗방울 장난감을 이용해 비눗방울을 날려주면 아장아장 걸음으로 그 사이를 헤집고 다닌다. 촬영 도중 적절한 타이밍에 카메라를 향해 안녕, 하고 손짓도 해 보일 줄 안다. 촬영장에서 연신 귀엽다고 감탄사를 늘어놓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즐기는 듯하다.

“시영이가 호기심이 정말 강해요. 항상 관심 받고 싶어 하고요. 그래서 사람 많은 장소에 가는 걸 좋아해요. 특히 마트요. 그곳엔 예뻐해 주는 주부나 할머니들이 많잖아요. 사람들이 귀엽다, 귀엽다 해주면 좋아하고 더 잘 반응하거든요.”

이름 정시영 (태명: 장꾸)

나이 2살 (18개월)

매력 포인트 호기심 어린 눈빛

구사 가능 단어 엄마, 아빠, 맘마, 가자, 까꿍 등

아이는 누굴 닮은 걸까. 서글서글한 인상은 아빠 정종영 프로를, 호기심 강하고 사람 좋아하는 성격은 엄마 백주영 씨를 쏙 빼닮은 듯 보인다. “어릴 적 제 사진과 비교해보면 저와 시영이가 무척 닮은 거예요. 정말 신기했어요. 처음엔 저를 닮았다고 생각했는데 크면 클수록 아내 얼굴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해요.”

활달한 아이 성격에 관해 주영 씨가 한마디 보탠다.

“시영이 태명이 ‘장꾸’였어요. 장난꾸러기로 건강하게 자라길 바랐거든요. 그런데 정말 장난꾸러기로 크고 있어요.”(웃음)

이날의 촬영 콘셉트는 ‘홈캉스’. 말 그대로 집에서 즐기는 여름휴가다. 보기에, 입기에도 편안한 청색 계열의 캐주얼 차림으로 의상을 맞춰다. 가정집의 아늑한 풍경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스튜디오 내부는 어느 피서지 못지않게 시원하고 쾌적했다. 휴가철이면 어디든 떠날 생각에 부풀어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기 마련이지만 사실 집에서 가족이 둘러앉아 수박을 먹으며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 한 바캉스가 또 있을까.

“저희 부부가 늘 회사 일에 매여 있다 보니 어디 놀러 가서 뭔가 격하게 활동을 하기 보단 조용히 지내면서 편안하게 쉬는 편을 선호해요. 그런 쪽으로 코드가 잘 맞거든요. 취미라고 할 만한 건 특별히 없고 가끔 휴일에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다니는 정도예요.”



운명처럼 이끌린 부부, 선물처럼 찾아온 아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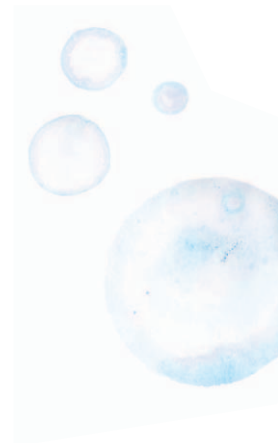
부부는 여전히 달달한 신혼 생활에 머무는 중이다. 연애를 시작한 지 9개월 만에 식을 올린 뒤 두 달 만에 아이를 가졌다. 모든 게 일사천리다. 부부의 나이가 30대 초반인 점을 감안하면 그들의 사연에 더욱 호기심이 생긴다. 정종영 프로와 주영 씨는 어떻게 만나 결혼까지 내달릴 수 있었던 걸까.

“지인 소개로 만나게 됐어요. 처음 만나기로 한 날 공교롭게도 광화문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서 못 만날 뻔했어요. 사람들이 워낙 많고 차량 통제도 심했거든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약속장소를 옮기기로 했어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여의도역에서 만났는데 아내가 역 밖으로 올라오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순간 가로등 불빛이 아내를 비추는데 후광처럼 빛나더라고요. 느낌이 왔죠. 아, 이 여자와 왠지 잘 될 거 같다.” 첫눈에 불꽃이 튼 남편과 달리 아내 주영 씨는 남편의 뒤편이에 매료됐다. 건설업계 종사자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선입견이 작용했는데 막상

만나보니 상상 속 이미지와 전혀 달랐다. 남편의 조곤조곤한 말씨와 배려심 넘치는 성품이 마음을 녹였다.

“말을 정말 예쁘게 했어요. 건설 회사를 다닌다고 해서 사람이 거칠지 않겠냐고 주변에서 우려하는 이들이 많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사진으로 봤을 땐 체격도 엄청 커보였거든요. 다행히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 부담을 덜었어요. 사람이 거칠지 않고 순해서 같이 살면 사랑 받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영 씨의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남편은 언제나 바쁜 일상에서도 아내와 아들을 세심하게 챙기려고 노력한다. 부부는 맛벌이 생활을 하면서도 살림과 육아 문제로 충동을 일으키는 일 없이 서로를 배려하며 알콩달콩한 삶을 살고 있다. 연애와 결혼생활을 통틀어 지금까지 크게 싸워본 적도 거의 없었다. 그리고 부부에게 선물처럼 찾아온 시영이. 엄마, 아빠 곁에서 활력소 역할을 톡톡히 해주는 시영이 덕에 정종영 프로의 가족은 완벽한 조합을 이뤄가고 있다.



MINI INTERVIEW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



남편 정종영 프로

시영이 낳고 휴직 기간에 아이 돌보느라 고생 많았는데 지금은 일과 육아를 병행하고 있어요. 철인이 따로 없죠. 늘 고맙고 미안한 마음뿐이에요. 우리 가족 모두 오래오래 행복하게 지내길 바랍니다.



아내 백주영 씨

우리 가족 모두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가족과 즐거운 추억 많이 만들고 싶고요. 시영이가 어느 정도 크면 함께 여행 다니며 많은 걸 보여줄 생각이예요.



지금처럼 밝고 행복하게 성장하길

화기에애하던 촬영장에 분위기 전환의 조짐이 일었다. 촬영 중간 시영이가 촬영에 흥미를 잃은 듯 투정을 부리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울음을 터뜨렸다. 모든 사람의 얼굴에 당혹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뽀로로 영상을 보여주고 비눗방울을 날려보며 어르고 달래보지만 좀처럼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 배가 고픈 걸까. 우유를 먹여 보며 잠시 휴식시간을 가졌다.

이번엔 수박을 준비해 둔 테이블에서 촬영을 재개했다. 수박을 바라보는 시영이의 표정이 밝아졌다. 온 가족이 포크로 집어 든 수박을 들고 포즈를 취해보기로 한다. 시영이는 엄마가 도와주려는 걸 거부한다. “시영이가 집을 거야? 그래, 집어보세요. 웬지, 잘 하네.” 촬영장에 웃음이 터진다. 시영이는 직접 포크로 수박을 집어 들고 먹기 시작했다. 아이 고집이 상당하다는 아빠의 말을 실감하는 순간이다.

“시영이가 고집이 세요. 옷 입을 때도 자기가 고

른 걸로 입으려 하지 입혀주려고 하면 싫어하거든요. 예전엔 덜했는데 갈수록 더하네요.”

다시 기분이 좋아진 시영이는 마지막 거실 촬영 때 한층 더 기분이 고조됐다. “박수, 박수!” 하는 외침에 박수를 치며 까르르 웃기까지 한다. 이 기회를 놓칠세라 카메라 셔터가 쉴 새 없이 눌린다. 촬영장 분위기를 쥐락펴락하던 시영이의 환한 미소와 함께 이날 촬영이 마무리됐다. 시영이를 바라보는 엄마와 아빠의 표정에 안도감과 만족감이 동시에 깃든다.

정종영 프로와 주영 씨는 언제까지나 시영이가 밝고 건강한 장난꾸러기로 남기를 희망한다. 아이가 빨리 컸으면 싶다가도 너무 빨리 크는 모습을 보면 또 아쉬워 천천히 자랐으면 하는 게 엄마의 솔직한 심정이기도 하다. 누구보다 서로를 위할 줄 아는 엄마와 아빠 사이에서 시영이는 심성 곧은 아이로 자랄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약자에게 약하고 강자에게 강한 아이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부모의 바람대로.

그들은 누구인가,



사이코패스

우리나라에 '사이코패스'라는 개념이 알려진 시기는 유명철 연쇄살인 사건이 터진 2004년이였다. 2003년 9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20명을 무참히 살해한 유명철은 최대의 살인마로 세상을 경악케 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2007년에는 안양 초등 학생을 유괴한 뒤 살해한 정성현이 사형선고를 받았고, 2008년에는 조두순 사건, 2013년에는 울산 계모와 칠곡 계모사건 등이 잇따라 터지면서 사회 전체는 공포에 휩싸였다. 여기에 범죄스릴러 미드 열풍이 가세해 '프로파일링'이라는 단어가 심심치 않게 등장하면서 범죄심리학과 사이코패스에 대한 관심은 점차 높아졌다.

글 전미경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 출처 「퇴근길 인문학 수업 · 멈춤」

체크리스트로 찾아내는 사이코패스



사이코패스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시기는 1940년대에 이르러서다. 미국의 정신의학전문 크렉클리가 1941년 그의 저서 『온전한 정신의 가면』에서 현대적 의미의 정신병질과 사이코패스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사이코패스는 피상적으로는 매력적이고 지능도 우수하다. 하지만 본인의 행동에 뉘우침이나 부끄러움이 없고, 대인관계 능력도 떨어지고 냉담하다. 게다가 거짓말과 반사회적 행동을 쉽게 하는 사람이다. 실제로 21세기인 현재의 사이코패스를 설명할 때에도 크렉클리의 개념이 통용되고 있다. 현재 일반 인구 중에서 1퍼센트가 여기에 해당하고, 수감자 중에서는 15~25퍼센트가 해당된다. 사이코패스의 가부를 판단하기 위한 검사 도구가 나온 것은 한참 뒤다. 캐나다 출신 임상심리학자인 로버트 헤어 박사가 사이코패스 검사 도구 PCL-R을 개발했다. 그는 현재 세계적인 범죄심리학의 대가이기도 하다. PCL-R은 크렉클리의 개념을 정교하게 체계화해 두 개의 요인으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다. 대인관계와 감정적인 부분으로 주로 냉담성, 죄책감 결여 등을 포함한 요인 1과 생활방식이나 반사회 행동으로 무책임한 생활양식, 행동통제 곤란 등의 요인 2로 구분된다. 40점 만점에 25점 이상이 나오면 사이코패스일 수 있다는 의심을 할 수 있다. 참고로 유명철은 37점이 나왔고, 강호순은 28점을 받았다.

사이코패스 체크리스트(PCL-R)

※ 자료: 학지사 심리검사연구소

	아니다	아마도	그렇다	생략
1. 입심 좋음 / 피상적 매력				
2. 과도한 자존감				
3. 자극 욕구 / 쉽게 지루해함				
4. 병적인 거짓말				
5. 남을 잘 속임 / 조종함				
6. 후회 혹은 죄책감 결여				
7. 얕은 감정				
8. 냉담 / 공감 능력 결여				
9. 기생적인 생활방식				
10. 행동통제력 부족				
11. 문란한 성생활				
12. 어릴 때 문제행동				
13. 현실적이고 장기적인 목표 부재				
14. 충동성				
15. 무책임성				
16.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 못 느낌				
17. 여러 번의 혼인 관계*				
18. 청소년 비행**				
19. 조건부 석방 혹은 유예의 취소**				
20. 다양한 범죄력***				

태생부터 확연히 다른 기질적 문제



사실 사이코패스는 정신의학 분야의 전문용어는 아니다. 그나마 현재 정신의학계에서 비슷하게 쓰는 진단은 '반사회적 인격장애'이다.

사이코패스에 대한 미국과 영국의 온도차는 분명한데, 영국에서는 사이코패스라는 단어의 뜻이 경멸적이라 하여 거의 쓰지 않고 있다. 반면 미국의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진단율은 유럽의 국가들보다 훨씬 높다. 즉, 휴머니즘적 관점의 차이가 있다는 말이다. 미국은 대체로 자본주의적 사고방식을 적용해 인간을 하나의 유기체로 값을 매기지만, 유럽 국가들은 문화적 존재로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고방식이 지배적이다.

그렇다면 왜 사이코패스가 되는 것일까? 닥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이겠지만, 관련 논문에 따르면 몇 가지 가설로 압축된다. 뇌영상 연구에서 전두엽 기능이 떨어져 충동성을 조절하지 못한다는 가설과 편도체의 기능이 떨어져 감정이 무뎌진다는 가설이 있다. 여기에 추가해서 신경 전달물질 세로토닌 수치가 낮거나 테스토스테론이 높으면 공격적인 성향이 짙어진다는 이론도 있다. 즉 충동성, 대뇌 각성도, 공포에 대한 반응이 일반인과 다른 기질적인 문제가 선천적으로 확연하게 존재한다는 게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다.

또 열악한 양육 환경 등의 후천적인 결과로 소시오패스라는 개념을 만들어 정의내리기도 한다. 소시오패스는 기질적으로는 일반인에 가깝지만 어린 시절부터 가난한 환경 탓에 심리적 불안을 겪거나, 주변인으로부터 학대를 당하는 등 부정적인 사회 환경에 노출되어 반사회적 행동을 하는 사람을 뜻한다.

>>

아니다 = 0점, 아마도 = 1점, 그렇다 = 2점, 생략 = ×

*연령 30세 미만: 0~1회 = 0점, 2회 = 1점, 3회 이상 = 2점
30세 이상: 0~2회 = 0점, 3회 = 1점, 4회 이상 = 2점
** 위반사항 없음 = 0점, 경미한 범죄 = 1점, 주요 범죄 = 2점
*** 0~3가지 = 0점, 4~5가지 = 1점, 6가지 이상 = 2점

어떤 물체의 길고 짧음, 무겁고 가벼움을 알아보려면 가장 먼저 단위와 기준이 필요하다. 킬을 재려면 자가 필요하고 체중을 재려면 저울이 필요한데, 무언가를 측정하려면 측정 단위, 즉 1미터 또는 1킬로그램과 같은 크기의 기준이 우선 정해져야 한다. 정확하게 정의된 측정 단위는 과학적 목적뿐만 아니라 상업적 거래에도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이 기준이 달라진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글 유재준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교수

1kg의 기준이

모든 측정 단위는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단위의 기준이 일단 정해지면 다른 측정의 기준도 그에 따라 결정된다. 질량도 예외는 아니다. 만약 1킬로그램의 기준이 바뀌게 된다면, 질량과 관련된 힘과 에너지 등 다른 물리량의 기준도 잇달아 바뀔 수밖에 없다. 따라서 최초로 정해진 기준을 엄밀하게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산업 혁명과 더불어 과학기술 혁신이 일어났던 19세기 후반, 영국 런던에서 킬로그램 원기가 처음 만들어졌다. 당시 최고의 합금 기술로 백금 90퍼센트, 이리듐 10퍼센트를 섞어 직경과 높이가 각각 39밀리미터인 원통 모양의 킬로그램 원기가 제작되었고, 프랑스 파리 근교 세브르에 설치된 국제도량형국으로 옮겨졌다. 그곳에서 다시 잘 다듬어진 킬로그램 원기는 1901년 제3차 국제도량형총회에서 1킬로그램의 국제단위계 질량기준으로 공표된 바 있다.

킬로그램 원기의 '체중'이 줄었다?

현재 질량을 제외한 나머지 6개 단위, 시간(s), 길이(m), 전류(A), 온도(K), 물질량(mol), 광도(cd)는 모두 물리적 원리를 바탕으로 정의돼 있다. 하지만 질량은 다르다. 킬로그램 원기는 앞에서 언급한 표준과는 달리, 자연의 원리가 아닌 사람이 임의로 정한 기준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1기압 섭씨 4도의 순수한 물 1리터의 질량을 본떠서 만들어진 킬로그램 원기는 세상에 단 하나뿐이고, 이 세상 모든 저울의 눈금은 그 기준에 따라 정해진다.



킬로그램 원기

66 킬로그램 원기의 질량이 줄면 수많은 불편한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질량이 변했다고 자연의 현상이 바뀌진 않으니까.

99

그래서 누군가 킬로그램 원기에 재채기라도 한다면, 전 세계 모든 저울의 기준이 달라져 버린다. 이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킬로그램 원기는 비밀 금고의 진공 유리병 속에 보관되고 있으며, 복사본 제작과 점검을 위해 현재까지 1889년, 1946년, 1989년 단 세 차례 꺼낸 적이 있을 뿐이다. 1889년에는 복사본의 질량이 모두 같았는데, 1989년 측정 이후 지금까지 원기의 질량이 복사본에 비해 약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그동안 원기의 질량이 줄어든 것인지 아니면 복사본의 질량이 늘어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원기의 변화한 질량이 50마이크로그램, 즉 1킬로그램의 1억분의 5 정도 수준으로 실생활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줄어들고 있다

무게를 재는 대신 원자의 개수를 세어보자

당장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이런 식의 변화가 지속된다면 과학적인 차원의 문제뿐 아니라 실생활 차원의 문제까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원자의 개수를 정확히 세고 그것을 질량으로 환산하는 방식으로 킬로그램의 기준을 새로 정하자는 '아보가드로 프로젝트'가 국제도량형국을 통해 제안되었다. 물리적 원리에 따르면 원자의 질량, 즉 원자량은 절대 불변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보가드로 수는 더 이상 정확히 측정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1억분의 1만큼 더해지거나 빠지는 것은 현재로서는 측정을 통해 알기 어렵다.

우리는 질량을 재지 않고 무게를 잰다

킬로그램 원기의 질량이 줄어들면 단순히 질량을 표시하는 숫자가 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불편한 일들이 생길 수 있다. 질량의 단위가 달라지면, 이 세상 모든 저울의 눈금을 바꿔야 할 뿐만 아니라 힘과 에너지 단위의 기준도 달라지고, 전기요금의 기준까지 바뀌어야 한다. 그렇다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질량 단위가 변했다고 자연의 현상이 달라지거나 물리적 원리나 법칙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물리학자들은 일반인이 쓰는 단위와 다른 새로운 단위를 만들어 쓰기도 한다. 단위는 과학적 원리에 근거해 자연 현상을 기술하고 이해하기에 편리한 방법으로 정하면 그 자체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라오스에서 온
편지

풍경보다

사람이 아름다운

나라

‘라오스’

앨리스가 꿈속에서 토끼굴에 떨어져 이상한 나라로 오게되면서 겪는 신기한 일들을 그린 동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다들 어릴 적 한 번쯤은 읽어 보셨을 거예요. 여행을 하다 보면 참 신기하고 이상한 경험을 할 때가 많아요. 현지인의 말도 안 되는 친절을 경험할 때가 바로 그런 순간 중 하나죠. 라오스는 여행 내내 참 이상한 나라였어요. 어쩔 그렇게 미소가 아름답고 사람들이 순박하죠. 닭들과 함께 버스를 타고 휴게소에서는 개구리 튀김을 파는, 웬지 오래전 우리 모습을 보는 듯해요. 그래서 더욱 이상한 가 봐요. 어, 어, 아직도 이런 나라가 있네 하고 말이죠. 라오스의 이상한 이야기 속으로 한라인들도 함께 들어가 봐요.

글·사진 김동우(여행 칼럼니스트)

방비엥 파응언 전망대에서 바라본 일몰



Dear. 한라인

라오스 여행 중 운 좋게 지나가는 차를 얻어 탔어요.

몇 시간을 달려 낯선 곳에 뚝 떨어지고 보니

방향감각이 없었어요.

골목을 헤매고 있는 저를 숙소 앞까지 데려다주는

따뜻한 사람을 만났어요.

숙소에 와 보니 온수기가 고장 났다고 했어요.

심호흡을 크게 하고 찬물로 샤워를 했어요.

한기에 덜덜 떠는 저를 보고

숙소 주인은 선한 미소와 함께 따뜻한 차를 내왔어요.

이 이야기처럼 가만히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마음 한구석에서 온기가 스미는,

라오스는 그런 특별하고 이상한 나라예요.

-

From. 김동우



열은 미소로 시작된 라오스 여행

캄보디아에서 국경을 넘어 라오스로 갈 때였어요. 버스에서 내려 멀리 보이는 출입국장까지 배낭을 메고 걸었어요. 한담을 나누던 심사관이 본체만체 컴퓨터 전원 버튼을 누르더군요. 그는 고압적 어투로 2달러를 달라고 했어요. 출국 심사에 1달러를 내는 것이 관례이지만 오후 4시를 넘겨 추가 금액을 내야 한다고 했어요. 못마땅한 표정으로 지갑을 열어 1달러 지폐 두 장을 내밀었죠. 심사관은 금고를 열었어요. 그 안엔 앞서간 사람들이 지갑에서 꺼내 들었을 1달러짜리 지폐가 어지럽게 담겨 있었어요. 이리저리 여권을 살펴피던 심사관은 선심 쓰듯 도장을 찍었어요. 그리곤 반원 구멍이 뚫린 유리창 너머로 여권을 던졌어요. 캄보디아를 빠져나오는 과정은 그리 유쾌하지 않았어요. 배낭을 메고 길을 따라 라오스로 넘어가 도장을 받게 다음 할 일이었어요. 라오스 국경 사무실에 도착해 여권을 내밀었어요. 손쉽게 15일짜리 무비자 도장을 받았죠. 물론 여기서도 2달러를 내야 했어요. 다른 게 있다면 열은 미소와 함께 손쉽게 제 손에 여권이 전해졌다는 거죠. 선을 하나 넘었을 뿐이었는데 웬지 사람이 확 달라진 느낌이었어요.



- 1 라오스 사람들에게 정중히 사진을 찍어도 되겠냐고 물으면 그들은 열은 미소로 대답을 대신할 때가 많았다.
- 2 시판돈 돈콘섬에 살고 있는 동네 꼬마아이들이 황홀한 메콩강의 일몰 아래서 먹을 감고 있다.
- 3 메콩강은 '어머니의 강'이란 뜻을 갖고 있다. 강은 라오스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자 놀이터가 돼 준다.
- 4 4,000개 섬이란 뜻을 가진 시판돈은 라오스 남쪽 끝에 자리하고 있다. 라오스 사람들의 여유 있는 삶과 넉넉한 미소를 가까이 볼 수 있는 장소다.

시판돈의 밤이 아름다운 이유

캄보디아에서 라오스로 넘어오면 13번 도로가 라오스를 남에서 북으로 이어요. 13번 도로의 시작은 4,000개의 섬이란 뜻의 시판돈부터죠. 메콩강은 라오스 남쪽에서 큰 몸부림을 치기라도 하듯 보석 같은 크고 작은 섬들을 만들어 놓았어요. '어머니의 강'이란 수식어처럼 섬을 포근하게 감싸 안는 메콩강, 그 주변에선 시간이 뒷짐을 지고 느린 걸음으로 걷는 것만 같아요. 캄보디아를 거쳐 라오스에 들어오자 뉘엿뉘엿 해가 넘어가고 있었어요. 메콩강은 어둠 속에서 하루의 열을 식히는 듯 고요했어요. 여행자들과 주민들이 한데 섞여 폭이 좁고 길쭉한 보트에 올랐죠. 작은 랜턴에 의지해 좌우로 휘청대는 보트 위에 살금살금 자리를 잡았어요. 잠시 뒤 엔진 소리가 정적을 깼어요. 배는 빛 한줄기에 의지해 천천히 물살을 갈랐죠. 선장은 랜턴을 이리저리 비추며 잘 보이지도 않는 그물을 피해 뱃길을 잡아 나갔어요. 그렇게 배는 20분쯤 강을 거슬러 먼저 돈땃섬에 닿았어요. 시판돈에 있는 많은 섬 중 여행자들이 가장 많이 머물고 있는 장소죠. 그런 번잡스러움을 피해 돈땃 섬과 마주 보는 돈콘섬에 숙소를 예약해 두었어요. 선장은 돈콘섬까지 툽툽을 이용해야 한다고 했어요. 잠시 뒤 군데군데 깨지고 파

인 아주 낮은 툽툽을 타고 한 기사가 나타났어요. 낮은 툽툽은 울퉁불퉁한 길을 덜덜거리며 달리기 시작했어요. 밝은 조명이 거리를 비추고 있는 골목을 빠져나오자 기사는 휴대전화 조명으로 앞을 비춰 달라고 했어요. 툽툽에 달린 조명은 세월 앞에 이미 노안이 온 지 오래였어요. 기사는 휴대폰 조명에 의지해 빗물이 고여 있는 웅덩이와 불규칙하게 돌출된 돌부리를 피하기 바빴어요. 이 모습이 마치 술 취한 사람 같았죠. 작은 다리 앞에 툽툽이 멈춰 섰어요. 걸어서 다리를 건너 달라는 이야기였죠. 다리는 여러 겹의 나무로 덧대 놓았는데 차라리 걸어가는 게 마음 편해 보였어요. 다리를 건너자 마을을 완전히 빠져나온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놀라운 풍경이 펼쳐졌어요. 툽툽 주변으로 작은 LED 불빛 같은 게 몰려들더군요. 마치 길을 인도해주려는 모습이었어요. 기사는 놀라는 내게 "Fire fly"라고 외쳤어요. 길 양쪽으로 초롱거리는 반딧불이 무리가 툽툽을 호위하는 듯 나뭇나뭇 풀 어둠을 수놓았죠. 그것도 한두 마리가 아니었어요. 마치 현실과 이상한 나라를 잇는 통로 어디쯤을 달리고 있는 듯한 황홀한 착각, 그리고 그 끝에 여행자를 기다리고 있는 4,000개의 섬들. 목적지에 도착하자 기사는 '여기 참 신기하지'란 말을 하는 것 같은 웃음과 함께 손을 흔들었어요.

1 작은 보트를 타고
공로 동굴을 둘러 보다 보면
다양한 종유석 등을
관찰할 수 있다.

2 라오스의 젓줄 메콩강 풍경.

공로동굴, 절대 놓치면 안 될 여행지

메콩강 줄기를 따라 안온하게 자리 잡은 반공로 마을을 방문했어요. 이곳은 라오스에서 만난 풍경 중 가장 극적인 공로동굴이 있는 곳이에요. 배를 타고 칠혹 같은 동굴 속으로 들어가면 기상천외한 풍경과 맛दार리는데 그 규모만도 보트로 2시간 정도 둘러봐야 하죠. 길이만 7km가 넘는 석회암 동굴은 신비 그 자체예요. 보트를 타고 어둠 속으로 들어가다 보면 희미한 불빛이 보여요. 바로 다양한 형태의 종유석을 관찰할 수 있는 곳이에요.

여행 가이드북 론니플래닛은 ‘고대 그리스 수중세계에 필적할 만한 놀라운 존재를 발견하고자 한다면 공로동굴로 가라’고 썼는데, 라오스 하이라이트 여행지 2위에 이 동굴을 올려놓았을 정도예요. 실제로 이 동굴 체험은 정말 스릴 넘치는 모험으로 가득해요. 보트를 타고 어둠 속에서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 자체만으로 잠시 탐험가가 된 듯한 느낌을 주니까요. 게다가 반공로 마을은 라오스에서 만난 가장 아름다운 마을이기도 해요. 걸음을 더할수록 오래된 사진 같은 장면들이 골목골목에 숨어 있는 그런 장소죠. 마을 어귀에는 어김없이 넉넉한 메콩강이 자리 잡고 있어요. 가만히 자리를 잡고 강에서 몸을 식히는 물소 떼, 검게 그을린 팔뚝을 씰룩거리며 건져 올리는 그물, 집

앞에서 먹을 감는 아이들, 강을 거스르거나 순응하며 어디론가 부산히 움직이는 배들, 그 옆 다리 위에서 용기를 뽐내며 강에 몸을 던지는 젊은이들... 이처럼 반공로 마을은 또 다른 극적인 장면으로 가득해요.

방비엥 최고의 뷰포인트에 올라

라오스의 아름다운 자연을 즐긴 다음 북으로 올라가면 수도 비엔티안이 나와요. 현지어로 ‘위양짚’이라고 불리는 이 도시는 ‘백단향’ 또는 ‘달의 도시’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도시 건설 당시 백단향 나무를 심어 경계를 표시한 게 유래란 주장과 조상들이 달에서 내려왔다는 전설에서 온 이름이란 설이 있어요. 비엔티안은 지금보다 훨씬 큰 도시였어요. 그런데 1828년 태국인들의 침략을 받고 도시가 완전히 사라질 위기까지 가죠. 불행하게도 이 침략으로 도시가 두 개로 쪼개졌는데 현재 메콩강을 사이에 두고 태국과 국경을 마주하게 된 아픈 역사의 시작이죠. 그런 곳이 프랑스 식민지가 되면서 도시 곳곳에 유럽식 건물들이 들어서고 또 한 번 변화를 겪어요.

여행자들은 보통 비엔티안에서 방비엥으로 바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방비엥은 한적한 고상길이 이리저리 나 있는 시골 같아 보여요. 보는 것만으로도 더위를 식혀주는 송 강이 흐르는 풍경은 마치 중국의 계림



을 닮은 것도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방비엥을 ‘라오스의 소계림’이라 불러요. 무엇보다 방비엥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블루라군’이란 다이빙 포인트로 더 잘 알려진 곳이죠. 탐 푸 캉 동굴 앞을 지나는 개천은 유독 푸른 물빛을 자랑해요. 나무 위에 올라 그 에메랄드빛 물속으로 몸을 던지는 장면은 방비엥의 상징과도 같아요.

방비엥은 워낙 한국 매체에 여러 차례 소개된 곳이라 마을 곳곳에 한글 간판이 유독 많이 눈에 띄어요. 그렇다고 숨은 명소가 없는 건 아니예요. 방비엥에 갔다면 파웅언 전망대에 꼭 올라 보길 추천해요. 블루라군에서 멀지 않은 곳인데 30~40분 정도만 등산을 하면 방비엥이 왜 소계림으로 불리는지 그 답을 얻을 수 있어요. 탁 트인 산꼭대기 위에서 내려다본 방비엥 풍경은 선뜻 산을 내려가지 못하게 할 정도로 드라마틱해요. 드넓은 논과 석회암 산이 병풍처럼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풍경은 땀 흘린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호사죠.

세계문화유산 루앙프라방

조금 더 북쪽으로 가볼게요. 그러면 라오스의 고대 왕국 흔적과 불교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루앙프라방이 나오죠. ‘루앙’과 ‘프라방’은 각각 ‘큰’, ‘불상’이란 뜻이에요. 이 도시는 프랑스 식민지 시절 모습과 라오스의 전통이 가장 잘 버무려진 도시예요. 무엇보다 1995년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서 최고의 여행지란 찬사를 받은 바 있어요.

루앙프라방은 참 볼거리가 많은 도시예요. 먼저 왕궁과 다양한 사원이 여행자의 이목을 끌어요. 올드타운 북쪽 메콩강변에 자리 잡은 ‘황금 도시의 사원’(왓 씨

3·4 루앙프라방 올드타운을
걷다 보면 메콩강 주변에서
잡아 올린 물고기와
주민들이 농사지는 다양한
농작물을 볼 수 있다.

5 루앙프라방은
라오스의 전통이 가장
잘 보존돼 있는 도시로
왕궁과 사원 등을
둘러 볼 수 있다.

6 루앙프라방의
새벽 탁발 의식은
유독 고풍스럽고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양통) 등이 대표적이죠. 하지만 전 라오스 사람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시장 풍경이 너무 좋았어요. 메콩강에서 잡아 올린 싱싱한 물고기와 산속 깊은 곳에서 채취한 죽순이며 각종 야채가 빙그레 미소 짓게 하더라고요. 또 걷다 보면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는 다양한 먹거리도 큰 즐거움이구요.

마지막으로 루앙프라방에서 절대 빼놓으면 안 되는 체험 하나 소개할게요. 바로 새벽 탁발 의식인데요, 탁발은 라오스 전역에서 이뤄지지만 유독 루앙프라방의 행렬이 고풍스럽고 아름답기로 유명해요. 현지인들은 스님들이 지나가는 동선을 따라 무릎 꿇고 앉아서 기다려요. 그럼 주황색 가사를 입은 스님 행렬이 지나가고 불자들은 조심스럽고 경건하게 발우에 밥 등을 공양하죠.

이 의식에 참여해 보면 아름다운 미소로 시작된 여정이 입이 딱 벌어지는 자연 풍경을 지나 경건하고 평화로운 안식으로 마무리되는 것 같아요.





Look Into

B2B와 B2C 구분 없이 인테리어와 리모델링, 건축자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다. '2019 코리아빌드'가 개최된 나홀간 코엑스는 말 그대로 '건설업계 축제의 장'이었다.

글 편집부 사진 김동우

건축의 모든 것을 한 눈에!

2019 코리아빌드

#1 — 예비 신혼부부 김나래 · 황원영 씨는 일찌감치 코리아빌드 사전등록을 한 채, 개막식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그들은 신혼집을 어떻게 꾸며야 할지 고민이 많던 차에 건축과 리모델링, 인테리어를 구성하는 자재와 기술 등을 한 군데서 확인할 수 있는 전시가 열려 한시름 놓았다고 말했다.

#2 — 국내 건설사 구매팀에 근무하는 강준우 과장은 코리아빌드 전시부스를 한 곳 한 곳 꼼꼼히 둘러보았다. 강 과장은 구조재, 외장재, 단열재, 창호 등 건축자재에서부터 욕실주방, 홈인테리어 등 인테리어 · 리모델링 자재에 이르기까지 앞으로 함께할 기업들의 전시품목을 눈여겨봤다.

'2019 코리아빌드'가 7월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코엑스 A, B홀에서 열렸다. 코리아빌드는 국내 최대 건축 전시회인 '경향하우징페어'를 글로벌 전시회로 키우기 위해 명칭을 변경하고 콘텐츠를 강화해 출범한 행사다. 지난 2월 전시는 국내외 우수 건축자재, 건축, 건설, 인테리어 관련 기업 980여 개 사가 약 3,820개 부스를 꾸려 성황리에 개최된 바 있다. 이번에 열린 전시회 역시 특별관과 전문 콘퍼런스 등 기존보다 강화된 콘텐츠, 수준 높은 전문성으로 전시장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전달했다.

2019 KOREA BUILD



품목 별로 3개 영역 구분해 '적재적소' 전시 실천

전시품목은 건축자재, 건축설비, 리모델링, 인테리어, 전원주택, 건축설계 · 시공과 관련된 전 품목이다. 박람회 △건축자재 △인테리어 · 리모델링 △데코레이션 등 전시품목 별, 3개 영역으로 구성됐다. 건축자재 부문에서는 건축물을 구성하는 구조재를 비롯해 외장재, 단열재, 창호재 등 건축자재와 건물의 기능성을 높여주는 설비 등 건축 시공을 위한 기자재, 신기술, 신공법을 소개했다. 인테리어 · 리모델링 영역에서는 타일, 대리석, 페인트 등 실내 공간을 구성하는 다양한 인테리어 마감재와 제품을 소개하며 공간 디자인 트렌드를 선보였다. 마지막으로 데코레이션 파트에는 공간의 가치를 더해주는 가구, 가전, 소품 등 홈데코 브랜드들이 다수 참가했다.

컨퍼런스, 세미나 등 다양한 행사로 마음 사로잡아

전시 외에도 전문 컨퍼런스와 부대 세미나, 다양한 특별관이 함께 구성돼 참가객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2019 디자인빌드 컨퍼런스(Design Build Conference)'에는 국내외 정상급 전문가들이 연사로 참여했다. SKM건축사사무소 민성진 대표, 디자인 스튜디오 김종호 대표, UDS주식회사 이토 케이이치 제너럴 매니저, 카지마건설 사카모토 히로유키 건축설계본부 건축설계총괄그룹 전임매니저가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건축 · 공간 디자인 트렌드를 전했다. 업계종사자들이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익한 정보와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제시하기도 했다.

또 '부동산 투자와 주거생활을 동시에 이루는 상가주택 만들기', '건축가 26인이 함께 하는 <집톡> 건강한 집짓기',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의 디자인 역량과 나전칠 엘리베이터' 등 업계 종사자와 예비 건축주를 위한 다양한 부대 세미나를 열어 참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코리아빌드만의 특색

‘Special 전시관’

2019 코리아빌드에는 국내외 우수 브랜드가 다수 참여했다.

건축, 리모델링, 인테리어 관련 제조 · 유통 기업과

시공사, 디자이너, 유관 기관 등 산업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트렌드를 공유하고 교류하는 장이 됐다.

특히 2019 코리아빌드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관에는

참관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경량 재질 마감재로 공간을 디자인하다 KOSID DESIGNUS

‘KOSID DESIGNUS 특별관’은 디자인투모로우 허허 대표의 디렉팅과 (사)한국 실내건축가협회(KOSID)의 디자이너 3인이 구성했다. ‘Little Forest’를 주제로 FELT(펠트)와 폴리카보네이트라는 경량 재질의 마감재를 활용해 캠페인성과 디자인 요소를 충분히 녹여낸 특별한 공간을 선보였다. 특히 내부에는 LED 빛이 은은하게 돌면서 프로그램 별, 상황 별로 무드를 조성하도록 했다. 기본에 충실한 공간이면서도 소재에서 오는 심미적 요소, 빛의 투과, 유기적 조형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 요소를 중점적으로 가미했다. 이를 통해 만들어지는 공간의 웅장함에 방문객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자재 고유의 매력을 만나다 MAGAM.essence

‘MAGAM.essence 특별관’은 컨시어지 플랫폼 ‘인테리어브라더스’와 함께 건축자재 기업과 디자이너 간 협업을 통해 새로운 시각으로 자재를 표현했다. 자재의 기능성에 디자이너의 창의성과 창조성을 더해 수준 높은 공간 구성을 제안했다. 지난 2월 ‘낯섦’이라는 주제에 대해 표현했던 인테리어브라더스는 이번에는 자재의 ‘본질’에 관해 이야기했다. 디자인본오, 아키모스피어, 백에이소시에이츠, 종킴디자인스튜디오 4인의 디자이너가 자재 브랜드 미가, 대보세라믹스, 구정마루, 녹수와 각각 일대일 협업을 통해 보통의 프로젝트로는 표현할 수 없었던 새로운 경험을 선사했다. 실제로 특별관을 찾은 참관객들 모두 마치 설치미술관에 온 것 같으며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다.

개인 맞춤형 인테리어를 제공하다 인테리어 컨설팅관

‘인테리어 컨설팅관 특별관’은 한자리에서 다양한 전문가와 인테리어 상담을 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로 평가받았다. 리모델링 수요자와 예비 건축주, 창업으로 공간 리뉴얼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마련한 컨설팅 프로그램으로, 전시 전 이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자를 받았다. 신청자가 너무 많아 일찌감치 마감된 건 당연한 이야기. 신청자가 자신의 예산과 면적, 취향을 입력하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자신과 꼭 맞는 전문가와 매칭되고, 최대 50분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컨설팅을 제공했다.



집중 조명!

눈에 띄는 기업

이번 ‘2019 코리아빌드’에는

가구 · 건축자재 기업 350여 개가 모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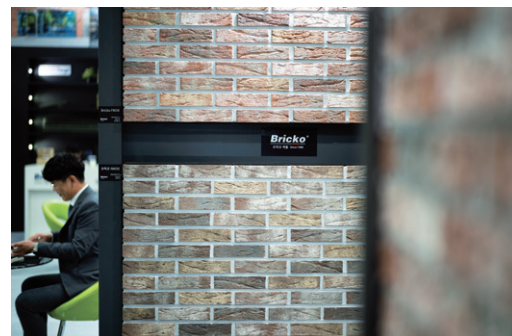
신제품은 물론 다양한 프로모션과 기술을 선보였다.

이 중 눈에 띄는 기업,

우수한 제품들만을 꼽아 소개한다.

외장재 · 단열재 청화요업

1980년 창립한 청화요업은 국내의 대표적인 벽돌회사로, 고품질 벽돌을 공급하는 믿을 수 있는 기업으로 명성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청화요업의 자체 브랜드인 ‘브릭코(Bricko)’ 벽돌을 소개했다. 제품에는 빠르게 변하는 국내 건축 시장 트렌드에 맞춰 친환경, 유해성분 차단 등 새로운 벽돌 패러다임을 개척하려는 청화요업의 노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특히 ‘라돈 측정기’로 ‘브릭코’ 벽돌의 유해물질을 직접 측정해 전시장을 찾는 참관객들에게 청화요업 제품의 안전성을 적극 알렸다.



2019 KOREA BUILD



내장 마감재 토탈석재산업

토탈석재산업은 ‘2019 코리아빌드’에서 이탈리아 아틀라스콘코드 그룹의 대표 타일 브랜드 ‘아틀라스플랜’을 선보였다. ‘아틀라스플랜’은 세라믹 타일의 선두주자로서, 최신기술과 감각적인 디자인을 자랑한다. 특히 토탈석재에서 자재를 직접 수입한 뒤 제조, 마무리 공정, 영업 및 판매, 시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믿고 맡길 수 있는 기업이 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욕실주방 동영미디어

동영미디어는 1995년 창립 이후 멀티미디어 분야의 선진기술과 핵심 신기술을 적용해 신개념 주방라디오폰을 국내 최초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이후 꾸준한 기술개발을 통해 주방TV폰, 욕실폰, 멀티미디어 디스플레이 등을 선보여 관련 업계를 선도했다. 2003년에는 사업 다각화 측면에서 디지털도어락, 무인택배 등의 보안 사업을 추진해 그 결과 세계 최초 후면 지문 도어락, 지정맥 도어락 등 개발자 중심이 아닌 소비자 입장의 보안을 강화하는 데 성공했다. 현재는 건설사 중심의 B2B 사업에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B2C 사업으로까지 영향력을 넓혀나가며 명실상부한 욕실주방 디스플레이 전문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창호재 삼원액트주식회사

삼원액트주식회사는 이번 박람회에서 몰드기술, 나노임프린팅 기술 등을 바탕으로 표면의 아름다움과 질감을 표현하고 상품화할 수 있는 벽면 타일을 전시했다. '시스월(Sys wall)'이라는 자체 브랜드의 벽면 마감재는 금속 메탈, 천연섬유, 우드, 코르크, 가죽 등을 활용한 다양한 질감을 표현할 수 있다. 특히 별도의 시공기술 없이 누구나 쉽게 타일을 조립할 수 있도록 설계함으로써 내 손으로 직접 집을 짓고 싶어 하는 고객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었다.



승강기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는 모기업인 독일의 기술력과 한국 시장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승강기의 디자인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칠예가 전용복 장인과 1년 6개월 여의 협업으로 출시한 '나전칠 엘리베이터'를 선보였다. 조개와 전복 껍질을 얇게 썬 나전은 특유의 영롱한 빛깔로 전시장을 찾은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회사 관계자는 '나전칠 엘리베이터'가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를 원하는 아파트와 호텔, 오피스를 위한 최고의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2019 코리아빌드 이모저모

- '2019 코리아빌드'가 열린 나흘간 수많은 사람들이 전시장을 찾았다. 과연 '국내 최대 규모의 주택 종합 박람회'라는 타이틀에 걸맞은 모습이었다. 사람 많은 곳에 재미있는 이색 풍경도 있는 법. 전시기간 중 눈에 들어온 '이모저모'를 정리했다.

2019
KOREA BUILD

강소기업 찾아주는 고마운 전시

이날 전시에 참석한 B2B 구매담당자들은 '코리아빌드'를 우수한 협력사를 한 곳에 모아놓고 둘러볼 수 있도록 해주는 고마운 전시로 표현했다. 양손 가득 관심 기업들의 소개 자료 가방을 든 그들의 발걸음은 유독 가벼웠다. 물론 가방 안에 들어 있는 소소한 기념품과 '혹시나' 기대하게 되는 경품추첨권도 또 다른 기쁨이라고.

내 생애 마지막 집은 내 손으로

전시장에서 우연히 만난 89세의 이두순 할아버지. 휠체어에 앉은 채 아들, 손녀와 함께 전시장을 찾은 그는 연신 고개를 두리번거리며 전시된 자재와 인테리어 용품들을 살펴봤다. 아들과 함께 살 전원주택을 지을 예정이라는 이두순 할아버지는 "내 생애 마지막 집에 쓰일 자재며, 인테리어를 직접 보고 싶었다"며 지친 기색 없이 전시를 즐기는 모습이었다.

최고 인기 품목은 음식물처리기?

다양한 품목들이 참관객들의 눈길을 끌었지만, 아무래도 최고 인기 품목은 음식물처리기였다는 비공식적인 통계. 싱크대에 내장돼 있는 음식물처리기를 직접 시연해 볼 수 있는 부스 앞에는 유독 중년 주부들이 길게 줄지어 서 있었다. 음식물쓰레기를 넣고 발판을 밟으면 분쇄되는 방식은, 주부들로 하여금 "진짜 찌꺼기가 하나도 없다고?"라는 감탄을 내뱉게 만들었다.

Happy Hour에는 간식과 함께

몇몇 기업들은 'Happy Hour' 시간을 정해 간식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전시 기간 중 가장 한적할 것으로 예상된 시간을 정했겠지만, 그 시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부스를 찾아 북적북적, 진땀나는 시간을 보낸 건 비~밀. 그래도 괜찮다. 오물오물 간식을 먹으면서 부스를 돌아본 참관객들은 분명 전시기업의 계획대로 Happy한 시간을 보냈을 테니까.

그래도 가장 좋은 건 선물

전시부스를 한 바퀴 돌고 나면 참관객들의 손에는 알록달록 가방들이 잔뜩 들려있다. SNS 인증, 설문조사, 선착순 방문자 카운팅 등 350여개 기업들이 진행하는 이벤트만 백여 가지. 시간, 상황에 맞춰 부스만 잘 찾아가면 10여 분 만에 기념품 대여섯 가지 받는 건 일도 아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했던가. 아마도 이번 기회에 '국내 최대 건축 박람회도 선물을 받은 뒤'라는 말이 생겨날 듯싶다.



직원과
고객 모두를
생각한다

녹취시스템 도입을 통한 고객응대 개선

- 마케팅관리팀

분양 및 입주 업무를 진행하는
(주)한라 마케팅관리팀의
고객응대 프로세스가 한층 더 고도화됐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고객응대 시스템이
직원과 고객 모두의 만족을 이끌어내고 있다.
글 편집부

미래지향의
한라3.0
Lead to Future 코너에서는 '제대로
일하는 방식' 한라路 사례를 공유합
니다. 이번 호에는 '제대로-일하는
시스템 구축' 부문의 실천사례를 실
었습니다.



Ver.1 — 전화녹음기
수동 버튼식, 녹취만 가능



Ver.2 — 녹취시스템, 비즈링 도입
자동 녹취시스템,
근무 외 시간 안내 서비스 시작



Ver.3 — DB통합관리
한라인 '입주관리' 화면 업로드를 통한
전 상담내용 공유 가능



신속하고 유연한
ONE - STOP 응대서비스로 도약

66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고객 민원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등
업무처리 효율성이 대폭 개선됐다.

또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고객만족도를 한층 끌어올릴 수 있었다.

99

녹취 프로그램의 필요성 확인

(주)한라는 고객응대 품질 향상을 위해 업무특성에 맞는 비즈링(통화연결음)과 녹취시스템을 보완해 운영하고 있다. 사실 2016년 이전의 고객응대 시스템은 콜센터, 상담이력시스템 부재로 수동적인 전화응대에 불과했다. 실제로 똑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들어야 한다는 불만을 제기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휴무일 등 미공지에 따른 통화연결 대기 불편을 토로하는 고객들도 많아졌다.

이와 함께 언어폭력으로 인한 직원들의 감정노동 스트레스 고조, 상담 시 억지성 민원 분쟁 대응 불가, 상담 데이터베이스 미비로 인한 고객 니즈 파악 지연 등이 문제로 제기됐다.

이에 마케팅관리팀은 “체계적인 시스템 활용을 통한 신속하고 유연한 원스톱 응대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고, 2016년 ‘녹취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고객응대 방법과 업무효율성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대대적인 고객응대 시스템 개선

(주)한라의 고객응대 시스템은 2015년 전화녹음기가 도입된 뒤 꾸준히 개선돼 왔다. 2016년 도입된 녹취시스템은 자동으로 녹취되는 것은 물론이고 단체연차와 개인휴가, 점심시간 등 영업시간을 안내하는 비즈링 서비스를 제공했다. 2018년부터는 고객과의 상담내용을 한라인 ‘입주관리’ 화면에 업로드해 전 상담원이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용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마케팅관리팀에서 고객응대 업무를 하고 있는 구나영 프로는 “2016년에 자동녹취시스템과 영업시간 안내 비즈링을 도입한 뒤 가장 효과가 컸다”면서 “연차나 개인휴가, 점심시간 등 영업시간을 안내해드리니까 무작정 기다리는 경우가 없어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줄었다”고 말했다.

구 프로는 또 “2019년 DB를 통합 관리한 뒤로는 고객들의 민원을

파악하고 대응하기까지 시간이 대폭 짧아졌다”며 “각자의 업무를 공유하고, 언제 어디서든 다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라고 전했다. 직원 별로 각자 맡은 분양 프로젝트가 다르지만, 관리시스템을 통해 서로의 업무를 공유할 수 있어 담당자가 자리를 비워도 고객들의 민원을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효율성·만족도·이미지 UP 기대

마케팅관리팀에서 도입한 녹취시스템은 상담세대 전수 녹취 파일을 저장하고 날짜별, 번호별 분류가 가능하다. 또 민원인이 계약자라면 동·호수, 연락처가 자동으로 표기되기 때문에 이전 통화내용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통화중과 부재중 등을 알려주는 ‘전화 수신 팝업’과 실시간 상담내용을 입력한 뒤 이력을 공유하는 ‘상담DB 한라인 이력공유’, 날짜별·시간대별 영업시간 안내가 가능한 ‘안내사항 비즈링’ 등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

마케팅관리팀은 이를 통해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고객 민원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등 업무처리 효율성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콜백으로 대기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면서 고객만족도도 대폭 높아질 거라고 예상했다. 특히 비대면서비스 품질 개선으로 (주)한라의 이미지와 신뢰도까지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관련 구나영 프로는 “녹취시스템과 비즈링 등 지금까지 도입한 고객응대 시스템은 적은 비용으로 업무 효율성을 크게 끌어올린 획기적인 사례”라며 “현재는 메모형식으로 남기는 게 전부지만 앞으로는 녹음파일을 직접 업로드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등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구 프로는 또 “지금은 마케팅관리팀에서만 활용하고 있지만, 앞으로 고객 상담이 많은 모델하우스나 관련 부서를 시작으로 전사에 확대 시행한다면 투자 대비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도전!
일일 브루 마스터 Brew Master

손수 빚어낸 풍부하고도 청량한

맥주의 맛



이만하면 충분히 안다고 자부했다.
그간 마신 잔을 헤아리기조차
어려울 지경이었지만
곧장 떨어진 질문에 말문이 막힌다.
맥주를 만드는 네 가지 재료는?
일일 브루 마스터에 도전해
직접 빚어보면서 비로소 제대로 알았다.
답은 물 · 맥아 · 홉(Hop) · 효모라는 사실,
아마 다들 몰랐을걸!
글 편집부 사진 이성원
강사 김용현(맥주 공방 '아이홉맥주' 대표)



자연의 섭리가 조화롭게 구현해낸 마법 같은 맥주의 세계

웬지 몸을 움츠리면 들어갈 수 있겠다 싶을 만큼 거대한 냄비에서 물이 끓는다. 맹운용 프로가 한 통의 진액을 알뜰하게 싹싹 털어 놓자 김아름 프로가 큰 주걱으로 휘젓는다. 소곤소곤 상의하는 두 사람 옆으로 다가온 김경훈 프로가 초록색 알갱이를 넣으니 푸르스름한 김이 훅 올라온다.

엄청난 마법의 약을 만드는 듯 보이지만, 그 정체는 맥주다. 가장 먼저 들어간 재료는 흔히 엿기름이라고 불리는 맥아로, 당분에 해당한다. 여기에 홉을 한 차례 넣자 부르르 끓으며 거품이 생겼다. 이제 계속해서 끓도록 뚜껑을 닫고, 한 자리에 둘러앉는다. 막간을 이용해 맥주에 대한 지식을 쌓을 기회다.



(왼쪽부터) 자재팀 맹운용 주니어프로, 인프라사업관리팀 김아름 주니어프로, Smart사업팀 김경훈 주니어프로



66

술 중에 맥주를 가장 좋아해서
일일 브루 마스터 체험이
더욱 즐겁게 느껴졌습니다.
역시 맥주의 세계는 깊고도 넓네요.
김경훈 주니어 프로

99



66

편의점에 가면 그냥 기분따라
맥주를 고르곤 했는데요.
제대로 알고 나니 달리 보이네요.
이제 친구들과 치맥할 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걸요?
맹운용 주니어 프로

99



앞서 물과 맥아, 그리고 홉을 마주한 세 사람이 아직 접하지 못한 한 가지는 효모다. 당을 먹고 탄산과 알코올을 배출해 술을 만드는 이 기막힌 주인공은 상쾌한 맛을 살리는 일등 공신으로, 엄연히 살아있는 생명체이기에 극히 뜨겁거나 차가운 온도는 견디지 못한다. 팔팔 끓인 맥아 물에 바로 넣는다고나 할지 모르겠으나 냉장 보관하면 안 되는 이유다. 효모가 섭취할 당원인 맥아는 베이스와 스페셜로 나뉜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베이스 맥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묵직하고 깊은 향과 색을 내려면 스페셜 맥아가 필수다. 여기서 퀴즈, 물 대비 맥아가 많아지면 자연히 효모가 생산하는 알코올이 늘어난다. 그럼 이 방법으로 한정 없이 도수를 높일 수 있을까? 정답은 ‘아니다’. 아무리 잘 먹는다고 한들 한계는 있기 마련이다. 마찬가지로 효모 역시 배부르면 수저를 놓는단다. 맥주, 막걸리, 와인 등 자연의 섭리대로 만드는 술이 최고 15도를 넘지 못하는 까닭이다. 물론, 사람의 힘을 빌리면 더 높일 수는 있다. 맥주를 60℃ 이상에서 끓여 모은 알코올이 위스키, 와인을 증류한 결과가 브랜드다. 막걸리에선 전통 소주를 뽑아낸다. 단숨에 30~40도를 넘나드는 주류로 재탄생하는 셈이다.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보는 보통 소주는 희석식으로 제조하기에 이와는 관련 없다는 상식까지 공부하면 어디 가서 아는 체는 조금 할 수 있을 터다.

똑똑, 맥주의 소울메이트 피자가 도착했어요!

다시 맥주로 돌아와서, 물 · 맥아 · 홉 · 효모를 분명히 정한 시초는 무엇일까. 그렇다. TV 광고로 익히 알려진 독일의 ‘맥주 순수령’이다. 이 네 가지 말고 다른 건 섞지 말라는 엄명은 지금도 지키고 있다고. 달리 말하면 과일, 꽃, 허브 등이 들어간 브랜드는 독일산이 아니라는 의미다. 흥미로운 이야기에 세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끄덕이는데 갑자기 냄비가 자기 좀 바달라는 듯 뚜껑을 들썩인다. 강의를 잠시 멈추고 열어서 홉을 약간 더 뿌리자 다시 잠잠해졌다. 문득 궁금하다는 듯 김경훈 프로가 손을 든다.

“맥주에서 홉이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요?”

마침 적절한 질문이다. 오늘 수제 맥주엔 소량으로 두 번에 나눠 들어 가는데 투입 시간에 따라 다른 맛과 향을 부여한다. 일찍 첨가할수록 씹새로운 맛이 강해지며 나중에 넣으면 그윽한 향이 남는다. 원래 생홉을 쓰지만, 수확 후 36시간 안에 써야 효과가 있어 건조·분쇄·압착을 거친 펠렛 홉을 쓰고 있다고. 종류는 200가지에 달하지만, 정작 쓰는 건 30가지 정도라는 점이 재미있다. 설명이 끝나갈 때 즈음, 맥주 공방으로 미리 주문한 피자가 도착했다. 누가 뭐래도 대체는 피맥(피자+맥주) 아니던가. 다 끓은 맥아 물은 25℃ 이하로 칠링(Chilling, 냉각)해두고, 만드는 과정만큼 중요한 음식에 빠져들었다. 짧은 휴식을 활용해 서로 맥주와 어울리는 음식을 추천하다 보니 좋은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온다. 특히 스타우트를 좋아한다는 김아름 프로가 단손단손(달고 쓴)한 맛엔 허니버터 아몬드가 최고라며 엄지를 척 올리자 나머지 두 사람이 서둘러 안주 리스트를 업데이트한다. 과연 맥주 마니아들끼리는 통하는 구석이 있나 보다.

같이 고생한 팀원들과 나누고픈 마음으로 완성한 최고의 작품

칠링을 마치고 효모와 섞어서 커다란 통에 담는다. 대체로 맥주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는데, 우리가 자주 마시는 황금색의 라거(약 6주 발효)와 그보다 어두운 빛깔의 에일(약 3주 발효)이다. 이 중 상대적으로 금방 완성하는 에일을 빚었으나 어둡고 서늘한 곳에서 최소 2주 이상은 두어야 한다. 따라서 지금 만든 작품은 저장해두고, 같은 조건에서 제작한 맥주를 병입하기로 했다. 햇빛에 취약한 특징을 고려해 갈색으로 만든 병에 설탕을 일정량 담는다. 아직 익는 중인 맥주를 넣고 살짝 찌그러트려서 마개를 꼭 닫는다. 앞으로 4일간 효모가 활발히 활동하면서 가스를 분출해내면 점점 부풀다가 이내 완전히 퍼질 터다. 완전히 숙성한 다음엔 냉장고에 보관해도 좋다. 사이좋게 두 병씩 양손에 꼭 쥐고 흔들며 보이는 세 사람에게 누구와 마실지 물어보니 입 모아 같이 고생하는 팀원들과 나누고 싶다고 밝힌 마음 씬씀이가 예쁘다. 다른 한 병은 반드시 혼술(혼자 마시는 술)로 즐길 거라며 소중히 품에 안는 맹운용 프로 덕분에 브루어리 내에 맥주 탄산처럼 시원하고 유쾌한 웃음이 와르르 터진다.

김용현 강사의 맥주와 어울리는 푸드 페어링 꿀팁

입맛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진하거나 도수가 살짝 높은 맥주의 짝으로는 간이 센 요리가 제격입니다. 예를 들어 타코나 스페인 음식 등이 여기에 속하죠. 반면 섬세한 맛을 자랑한다면 그에 맞춰 가벼운 풍미의 핑거 푸드나 견과류를 추천해드려요.



66

정성껏 빚은 맥주를
병에 하나 하나 옮겨 담다 보니
왠지 마음이 뿌듯해 지더라고요.(웃음)
4일 후면 숙성이 끝난다는데
그때가 기다려 지네요!
김아름 주니어 프로

99



한라그룹, 운곡(雲谷) 정인영 명예회장 13주기 추모 행사



한라그룹은 7월 20일 경기도 양평군 용담리 선영에서 운곡 정인영 한라그룹 명예회장 13주기 추모식을 가졌다. 정몽원 회장과 가족 및 친인척, 한라그룹 전·현 임직원 등 약 200여 명이 정인영 명예회장의 열 세 번째 추모 행사에 참석하였다. 추모 예배에서 종교교회 최이우 담임목사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행운아다. 대부분 많은 사람은 넘어진다. 나는 다시 일어났을 뿐이다.”라는 생전 정인영 명예회장의 말을 인용하며 ‘다시 일어서다’의 의미를 강조하였다. 정 회장은 가족을 대표하여 모든 참석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돌아가신 명예회장님께서 ‘마음의 평화’라는 말을 많이 하셨다”며 “지금 이 시기에 가장 와 닿아 가슴에 새기면서 그 마음을 통해 결의를 다져 다시 잘해보겠다”고 전했다.

‘종로 송인동 오피스텔 신축공사’ 수주



당사는 티움21㈜과 함께 ‘종로 송인동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약 723억 원(VAT포함)에 체결했다. 종로 한라비발디(가칭)는 서울 종로구 송인동 1425번지 일대에 위치하며, 연면적 35,622.12㎡(10,775.69평), 지하5층~지상21층, 오피스텔 547실(전용면적 19.7~79.2㎡타입)과 오피스사무실(2~3층), 상가(지하1층~지상2층)로 구성된다. 공사 기간은 실 착공 후 33개월이다. 8월 분양 예정이다.

종로 한라비발디는 서울 중심부 종로, 동대문, 청량리, 왕십리 상권의 중심에 위치하여 배후수요가 풍부할 뿐 아니라 왕십리뉴타운, 용두5구역, 용두6구역, 신설1구역 등 인근지역의 지속적인 재개발로 입지 가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도보로 이동가능한 거리에 신설동(1호선, 2호선, 우이신설), 동묘앞(1호선, 6호선) 지하철 4개 호선이 지나가고 서울 동서남북 전역으로 이동 용이한 대중교통망을 갖추고 있다. 사업지 인근에 이마트, 롯데마트, 백화점, 시장, 병원 등 생활편의시설도 다수 근접해 있다.

특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공공건축가인 이로재종합건축사사무소 승효상 건축가가 건축설계를 담당하며, 청계천, 광화문 등 공공공간 설계를 담당한 서안㈜ 정영선 대표가 조경설계를 담당한다. 혁신적이고 차별화된 건축과 조경설계로 서울 북부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송도 C6-1블록 업무시설 신축공사’ 수주



당사는 ㈜에스디파트너스와 함께 ‘송도 C6-1블록 업무시설 신축공사’ 도급 계약을 1,352억 원(VAT포함)에 체결했다.

금번 수주한 송도 C6-1블록 업무시설은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29-8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연면적 93,383.49㎡(28,285.51평), 지하4층 ~ 지상25층, 오피스 1,242실, 상가 271실(1~4층) 규모로 조성된다. 공사기간은 실 착공 후 33개월이며, 8월부터 분양이 진행될 예정이다. 본 시설은 업무지구, 공원, 관광, 휴게, 의료 등 다양한 핵심시설들이 모여 있는 송도국제도시 내 교차권역(국제업무지구, 송도6·8공구)에 위치한다. 도보로 5분 거리에 인천지하철 1호선 국제업무지구역(驛)이 위치하며 향후 인천1호선 국제도시역과 내부순환 트램역이 근접 신설될 예정으로 우수한 교통여건을 갖추고 있다.

특히 본 업무시설은 고객의 니즈에 맞는 형태로 다양하게 모듈화할 수 있으며 10평형 전후의 중소형 공간으로 조성에 벤처기업부터 스타트업, 전문직, 소호 사무실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입주고객을 위한 사위실, 라운지, 수면실, 카페테리아 등 특화 아이템들도 갖춰질 예정이다. 1억 원 미만의 소액 투자 상품으로 송도 테헤란로에 위치해 투자선호도 역시 높을 것으로 기대되며 국제업무지구 및 송도 6·8공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풍부한 배후수요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동했습니다

강석범 소장	동부간선도로확장
곽영국 소장	김해삼계두곡APT
김용균 소장	창원하수관로정비
석진혁 소장	오뚜기중앙연구소
권순형 프로	부산신항서컨테이너2차
김광택 프로	현대오일뱅크돌핀부두
김두수 프로	삼성화성조경공사
김성열 프로	삼원특수지사옥
김성우 프로	당진수청지구(토목)
김세중 프로	현대백화점사옥
김영학 프로	부산신항서컨테이너2차
김용락 프로	김해삼계두곡APT
김재석 프로	동탄물류C블록
김지수 프로	중로오피스텔
김태우 프로	송도업무시설
김희수 프로	김해삼계두곡APT
나상준 프로	당진수청지구APT
류근호 프로	회계팀
박노준 프로	당진수청지구APT
박성철 프로	중로오피스텔
박성호 프로	김포파주도로4공구
박수준 프로	송도업무시설
박준홍 프로	전기설비팀
반영현 프로	해외사업팀
손장훈 프로	서울대스마트캠퍼스단지조성
연규성 프로	김해삼계두곡APT
윤성태 프로	전기설비팀
이상민 프로	신사업팀
이상학 프로	송도업무시설
이재훈 프로	공사관리팀
이종희 프로	현대백화점사옥
이철호 프로	당진수청지구APT
이학재 프로	당진수청지구APT

이한섭 프로	삼성전자평택주차빌딩
정욱진 프로	인프라기술영업팀
정재욱 프로	남양주현대아울렛
정재혁 프로	방글라마타바리도로
정지윤 프로	현대오일뱅크돌핀부두
조성학 프로	김해삼계두곡APT
지인수 프로	김해삼계두곡APT
최대준 프로	화성동탄81B/L전기
최종대 프로	서울대스마트캠퍼스1차
하주용 프로	광주공군주기장
한호석 프로	동반성장팀
허경무 프로	중로오피스텔

환영합니다

이경철 프로	창원하수관로정비
권기윤 주니어프로	인사팀
김나영 사원	현대아울렛가산점

수고하셨습니다

진태준 고문	인사팀
허상범 프로	인사팀
김민기 프로	삼성레트로팀

축하드립니다

문창원 프로(자녀출산)	신사업팀
--------------	------

만수무강하십시오

채영은 프로(부친칠순)	기획팀
박근용 프로(모친칠순)	서해선10공구
조정덕 프로(모친칠순)	정보기획팀
강원순 프로(장인칠순)	인프라사업관리팀
양성문 프로(장인칠순)	공사관리팀
지인수 프로(장인칠순)	김해삼계두곡APT
문호준 프로(장인칠순)	창원하수관로정비
김치훈 프로(장모칠순)	호텔신라임시도로
지인수 프로(장모칠순)	김해삼계두곡APT
정지윤 프로(부친회갑)	현대오일뱅크돌핀부두
조민우 주니어프로(부친회갑)	김해삼계두곡APT
박영래 프로(모친회갑)	속초생활형숙박시설AB
정지윤 프로(모친회갑)	현대오일뱅크돌핀부두
문현종 프로(장인회갑)	Lets사업팀
임정환 프로(장인회갑)	회계팀
양성문 프로(장모회갑)	공사관리팀
유연신 프로(장모회갑)	제주탐동방파제
이창호 프로(장모회갑)	천진법인

삼가조의를 표합니다

이철호 프로(모친상)	당진수청지구APT
-------------	-----------



하루  5분 투자!

머리와 가슴,
코어의 중심을 바로 세우는
근력운동

매끈한 라인을 원하는 마음은 여름철 많은 이들의 발걸음을 헬스클럽으로 향하게 만든다. 몸을 보다 건강하고 탄탄하게 만들기 위해 필요한 건 근육. 지금 소개하는 ‘근력운동’만 꾸준히 하면, 율여름 몸 곳곳에 보기 좋은 근육을 만들어 휴가를 떠나 는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

동작 시연 시그마스스포츠클럽 SFC점 김진욱 트레이너

대표적인 근력운동이자, 코어의 중심을 잡아주는 **푸쉬 업 Push Up**

Point!

정수리부터 발뒤꿈치까지 하 나가 되어 움직인다고 생각하 면서 팔꿈치를 굽혔다가 펴준 다. 엉덩이를 내리지 않고 상 체만 움직일 경우 부상위험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① 의자를 잡고 자세를 취한다.



② 복부, 엉덩이, 등 근육에 긴장을 유지한 채 팔꿈치 관절을 굽혀 몸을 낮춘다.



③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몸의 긴장을 유지하면서 팔꿈치를 펴준다. 본인의 근력에 맞게 15~20회 반복해 운동한다.

보기 좋은 근육질 팔로 만들어주는 최고의 팔 운동 **벤치 딥스 Bench Dips**

Point!

몸통과 팔꿈치가 앞으로 움직 이지 않고 수직으로 내려가 는 게 중요하다. 운동 중 팔꿈 치가 옆으로 벌어지지 않도록, 또 허리가 굽어지지 않도록 주 의해야 한다.



① 허리를 곧게 펴고 의자에 앉아, 양팔로 지탱하며 엉덩이를 의자에서 띄운다.



② 어깨에 부담이 가지 않는 지점까지 팔꿈치를 굽힌다. 횟수를 반복할 때마다 발을 앞으로 내미는 폭을 넓혀주는 게 포인트다.



③ 삼두의 힘을 이용해 팔꿈치를 펴준다. 본인의 근력에 맞게 15~20회 반복해 운동한다.

B-cut Story



우리는 그의 손짓에 목말라 있었다 - 시영효과

그의 어여쁜 손짓 하나 카메라에 담기 위해 지난날 우리는 그렇게 셔터를 눌러댔나 보다. 정시영. 그는 자그마한 손 위에 어른 여럿을 올려놓은 채 '쥘락'했다. 그가 울면 모두가 안절부절못했고, 그가 미소를 지으면 모든 이들은 가슴을 쓸어내렸다. 일명, 시영효과. 안녕~ 하면서 흔들어주는 시영이의 고사리손이 일으킨 바람이 습한 여름날 한라인 모두의 맘을 말리고, 볼레지수를 날려버리길 바란다.

Editor's Note

알아두면 더 맛있는 맥주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세계 맥주 판매량 1위, 중국 설화(雪花)맥주. 전 세계 시장 점유율 6.1%를 차지하지만 우리에게 아직 생소한데요. 국내 화장품 기업 아모레퍼시픽과 상표권 충돌로 국내 진출이 어려웠기 때문이에요. 현재는 상표권 협의가 진행 중이니 그 맛은 좀 더 기다려봐야겠네요. 그럼 병맥주와 캔맥주 중 어느 것이 더 맛있을까요? 제조일이나 유통기한이 같다면 캔맥주가 더 신선하다고 볼 수 있어요. 캔은 빛을 완전히 차단하고, 유통과정 중 산소차단에도 병보다 유리하기 때문이라네요.
큰 인기를 끌었던 TV 예능 프로그램 '알쓸신잡'을 기억하실 거예요. 때론 꼭 알아야 하는 사실보다 알아도 쓸데없는 지식이 삶을 흥미롭게 만들지 않나요? 누군가 '쓸데없이 무용한 교양을 배우고 익히는 일이야말로 어른의 놀이'라고 하더군요. 일상을 다르게 하는 나만의 'Something New'를 찾아보세요. 작은 호기심, 색다른 배움이 완전히 다른 내일의 나를 만들지 모르잖아요.

Digital Curator's Talk!

건설 산업의 DT가 이뤄지고 있다.
- 해외 사례에서 배우는 DT

건설 산업에서도 '디지털 전환(DT)'은 이뤄지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디지털화에 힘을 쏟지요. 미국의 벡텔은 지난 2016년 디지털 혁신을 위해 6천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결정한 뒤 신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해운물류 산업의 강자 머스크 또한 계약서 등의 문서더미에 질려 블록체인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단위화 건설'이라는 새로운 접근법을 구상해 낸 희코리 그룹과 건축가 논다 카르살리디스의 사례도 알아두면 도움이 될 거예요. 단순한 디지털화는 이제 안 됩니다. 우리는 하루 빨리 과감하고 새로운 해외 기업의 사례를 공부해야 합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한마루 내 'Something New' 게시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Notice

사보 주재기자

허민 프로(동반성장팀), 강길현 프로(건축사업관리팀),
이진민 프로(안전보건팀), 김민중 프로(인프라사업관리팀),
조세웅 프로(S사업팀)

정기 구독 & 주소 변경

기획팀으로 전화(02-3434-5791)하시거나
메일(soomin.lee@halla.com)로 신청해주세요.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웹진으로 연결됩니다.
<http://hallawebzine.co.kr/>

김해가 꿈꾸던 신항주거타운의 중심 스마트 라이프의 시작

김해 삼계두곡 **한라비발디 센텀시티**

1,936세대 압도적인 스케일에

14개 테마공원,

수영장을 품은

초대형 커뮤니티시설까지-

김해에 없던

스마트 라이프를 만나보십시오



약 **1,000대** 이상의 **여유 주차**와 약 **9,000㎡** **커뮤니티시설**

- 7레인 수영장
- 대형 찜질방
- 휘트니스센터
- 탁구장
- 카페
- 유아플
- 사우나
- 골프연습장
- 당구장



초특급 교통 | 가야대역 도보 6분, 남해고속도로, 부산외곽순환도로, 국도 14번
수준급 교육 | 신명초교, 삼계중, 분성고, 분성여고, 가야대학교 등 우수한 학교
정상급 생활 | 단지 앞 편의시설 및 가야대역, 대형마트, 백화점 이용이 편리
최상급 자연 | 해변천, 화정공원, 무척산, 김해시민체육공원 등 쾌적한 자연환경

시행 | 삼계두곡 | 지역주택조합
시공 | Halla 주|한라
신탁 | KOREA trust

3월 OPEN
055) 311.7400

* 상기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임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건물면적의 색채 등은 배치설치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64㎡/75㎡/84㎡ 총 1,936세대 중 일부 일반분양